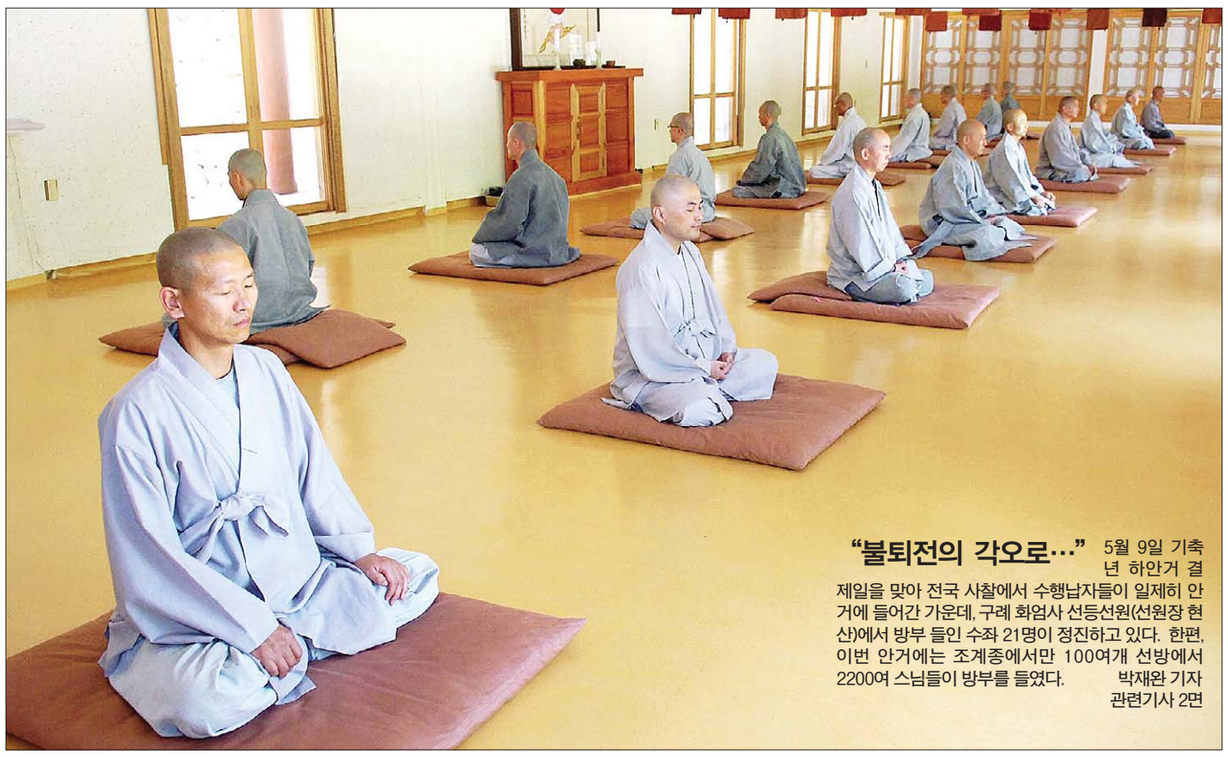
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5월 13일(음력 4월 19일) 수요일(주간)



"불퇴전의 각오로…" 5월 9일 기축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수행납자들이 일제히 안거에 들어간 가운데, 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선원장 현산)에서 방부 들인 수좌 21명이 정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에서만 100여개 선방에서 2200여 스님들이 방부를 들였다. 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2면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나는 공생청소년센터 간다! 우리 거기서 만나!"
불교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배 라오스. 순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오스에는 절대 빈곤에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74%가 영양 부족으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등록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라오스 싸이타니구 지역 3000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올바른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사랑은 부모와 연인 친구의 사랑보다 넓고 크나니….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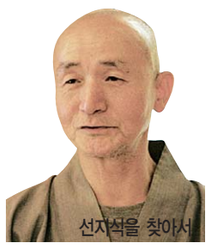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봉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선자적을 찾아서
▶12 법연 스님



▶15 혜남 스님



인터뷰
▶4 종삼 스님

'무소유' 이제 실천하자

조계종 '사유재산 종단 귀속' 입법 예고
사후 증여 형식, 홍보 · 처벌조항 등 과제

3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창립법회 시간에 맞춰 조계사 극락전에 하나둘 모여든 스님 40여 명의 앞에는 종이가 2장씩 놓였고, 스님들은 종이에 무언가를 정성스레 적기 시작했다. 한 장은 세상을 떠난 뒤 장기를 기증한다는 장기기증 서약서였고, 다른 한 장은 사후에 전 재산을 종단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을 쓰는 스님들의 모습에 세상이 떠들썩했다. 매스컴은 스님들이 장기기증 서약서와 유언장 쓰는 모습을 보도하며, 종교인의 본분을 되새김 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대중결사체를 구성한 법랍 20~30년의 중진스님들의 커리어가 아니라 그동안 허공의 메아리와도 같던 무소유(無所有)를 실천해 보이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그날 낭독된 결사선언문에서 스님들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야할 한국불교는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정한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스님들의 지적처럼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야할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는 환속 · 제적 · 사망하면서 개인명의의 재산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친적들에게 귀속되면서 종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삼보정재를 유실케 한 경우도 많았다. 출가수행 중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걸려 종단은 강 건너 불 보듯 속수무책이었다.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에게는 옷 세벌에 발우 하나를 뜻하는 '삼의일발(三衣一鉢)' 또는 '육물(六物)'의 소유만이 허락된 무소유에 가까운 생활이었다.

육물은 세벌의 옷[안타회(下衣) · 울다라승(上衣) · 승가리(大衣)]과 발우, 깔고 앉는 방석과 물을 걸러 먹는 주머니(녹수낭)를 가리킨다. 시간이 흐르며 생존을 위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조금 더 허용됐지만, 사타(捨墮)라 해서 계율에서 허락된 이상의 물품을 소유하면 그것들을 4인 이상의 도반들 앞에 내놓고 참회해야 했다.

부처님 당시처럼 무소유를 실천하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자 2007년 9월, 제174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승려법 제30조 2항에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을 성문화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종령이 제정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했다.

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여 만에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계종 스님들은 구족계 수계시를 비롯해 10년마다 있는 분한신고 시, 주지 임명 시, 각급 고시응시 신청 시 등 수시로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사후증여계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박종학 팀장은 "절차와 법률적 부분을 고심하다보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의견수렴 후 종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민법상 스님들이 입적할 경우 친족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어 이를 무리 없이 종단에 귀속시키려는 절차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는 해명이다.

승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은 "출가수행자에게 무소유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사유재산의 귀속을 위한 제정안이 정착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다소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차후에 보완하면서 제정안을 관철시켰던 본래의 정신만은 지켜나가자"고 환영했다.

스님의 우려처럼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 제도가 정착되려면 갈 길이 멀다. 당장 개정안이 종회에서 통과될 때 귀속된 사유재산을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사용하자고 했으나, 승려노후복지법이 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스님들이 소유욕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부실한 노후대책의 영향이 크다"며 "사유재산 종단 귀속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종령 시행에 맞춰 6월 종회에서 승려노후복지법이 통과돼야 구색을 갖출 것"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 귀속에 관한 약정서 작성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를 주는 처벌조항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사유재산에 대한 사찰 관리자의 전횡이나 임의 사용, 기타 임의 증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편법적으로 종단 귀속을 회피하는 점 등도 고려해볼 만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이 종단과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가져다 주는 이점은 크다.

사유재산의 귀속으로 종단에 형성되는 재산은 스님들의 노후와 교육에 쓰이게 된다. 또 일부 스님들이 사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오해가 불식되면서 스님과 신도간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한층 더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무소유의 삶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의무조항으로 성문화한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일 호기라는 평가다.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무소유의 제도화가 생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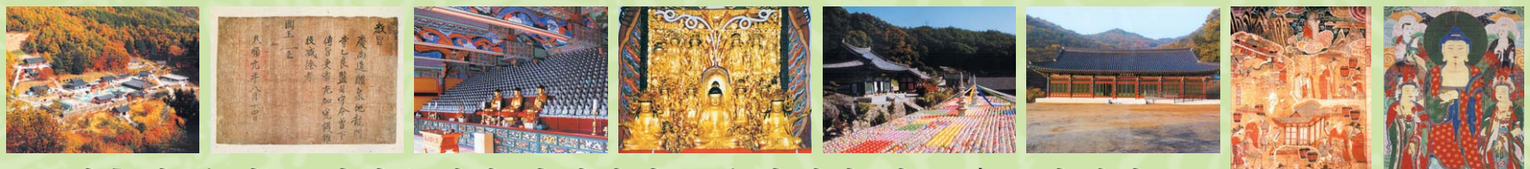
금주 24면 발행합니다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등불사 / 성보박물관 / 팔상탱(보물 제1330호) /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장애인에 대한 교리적 오해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불교 표준 수화집이 올해 말 편찬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청각장애인들은 불교 표준 수화집의 발간으로 불법을 쉽게 접하게 됐다. 무엇보다 스님을 대머리로 표현하는 등의 잘못된 표현, 지역별 서로 다른 손모양으로 사용 중인 불교 수화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장애인에 대한 포교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은 이웃 종교에 비해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가 월1회 여는 정기법회에는 150여 명의 회원 가운데 한 달에 6~8명만이 고작 참석하고 있다. 사부대중 대다수는 장애인 법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스님이나 신도들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법을 모르는 데 원인이 있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자로 바라보고 포교 정책은 후원이나 성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전부이다.

개화사상을 토대로 선교사의 복음전도와 함께 시작된 장애인 복지사업을 불교계가 벤치마킹했으나 미흡하기만 하다. 특히 불교는 인과응보설과 윤회사상 등의 영향으로 장애를 전생의 과보로 받아들이면서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 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는 천안(天眼)제일 아나율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다문(多聞)제일 웃다라는 척추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부처님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사회 속에서 그 능력을 평가 받게 하는 미래지향적 장애인관을 제시했다. 또 경전에 나오는 장애인의 모습은 소외가 아니라 주도 · 적극적인 모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식의 퍼주기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색해야한다.

법당에 들어가는데도 수많은 계단과 턱의 장애물이 있다. 법회를 보려면 차량의 지원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필요하다. 손을 잡아주고 함께 차를 타는 마음이 아쉽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생성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최고의 장애인 복지와 포교의 방법을 부처님은 주셨다. 우리가 그 법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장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방울의 물도 없거늘 무엇을 더듬는가?

하안거 결제… 조계종에서만 2200여 수좌 방부 들여

운수납자들이 모여 일대사 인연을 밝힐 불기 2553년 하안거가 5월 9일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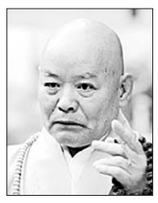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에서만 전국 100여 선원에서 2200여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였고,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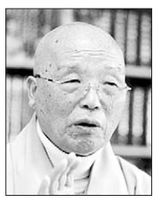
전국 사찰에서는 8일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했다. 9일 사찰별로 봉행된 결제법회에는 수행자들에게 쉼 없는 정진을 당부하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의 자비법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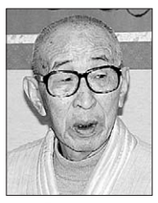
◇법전 스님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하안거 결제법어를 통해 전국의 수행납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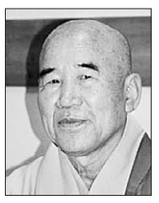
스님은 조주 선사가 수유 화상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화상이 "물깊이를 더듬고 있다"라고 답했고, 다시 선사가 "한 방울의 물도 없거늘 무엇을 더듬는다는 말인가"라고 말한 '조주탐수(趙州探水)'의 공안을 화두 삼아 이번 한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정 혜초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도반이 가는 길에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안거 결제법어를 내렸다.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명안종사의 가르침에 의지해 각자가 가는 길에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도반이 가는 길에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외호대중과 선방대중 그리고 학인이 모여 총림을 이루는 의미는 서로가 탁마하여 도를 이루고자 함이니 대중은 원력으로 체(體)를 삼고, 하심으로 용(用)을 삼아야 시은(施恩)을 녹여 복전(福田)을 이룰 수 있다"고 법문했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은 결제법어에서 계 · 정 · 혜 삼학을 원만히 닦을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계행(戒行) 없는 정(定)은 죽은 물로, 죽은 물에 사는 용(龍)은 활력이 없고 정력(定力) 없는 지혜(智慧)는 건혜(乾慧)일 뿐으로 생사(生死)의 길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결제대중은 시은(施恩)을 저버리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해서 늦어도 백중(百中)까지는 칠통(漆桶: 중생의 무명)을 타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일심본체를 바로 밝혀야 부처"라는 법문을 내렸다.

스님은 기축년 하안거 결제법어에서 "참된 정진은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음이다"라며 "마음이 부처도 이루고, 중생도 짓는 것이니 일심본체(一心本體)를 바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올바른 견해가 없다면 허기를 면할 수 없다"며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공부를 하는데는 올바른 견해를 지녀야 하지만 작금의 수행자들은 과거 선인들의 말씀을 새겨 의거하지 않는다"며 "간절한 믿음을 발하고 투철한 정견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 조동섭 기자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당선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에 우송 스님(백담사 주지 · 사진)이 당선됐다.

신흥사는 5월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단독출마한 우송 스님을 주지로 선출했다.

우송 스님은 1980년 서울 대각사에서 대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하동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상임감찰, 신흥사 기획국장과 총무국장을 거쳐 백담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4월 27~29일 신흥사 주지 후보 등록에는 무산 스님(現 신흥사 주지), 도후 스님(고성 건봉사 주지) 등이 참여했으나, 산중총회를 앞두고 두 스님은 후보를 사퇴했다. 조동섭 기자

"승랍기산 방식 전통 따르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결의해 총무원 건의

조계종 내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승랍기산 방식에 대해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전통방식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타 · 불국사 주지)는 5월 6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4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월정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등 17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해 종단현안과 승려법 관련 및 승가대학 운영과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지스님들은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승려법 제5조가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구족계를 수계하면 사미계와 사미니계의 수계일로부터 승랍을 기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를 것을 총무원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선원(큰방대중) 중심의 방함록 제작을 각 산중의 결계록 또는 용상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종단차원에서 방함록을 제작 · 보급할 것도 총무원에 요청키로 했다.

이어 주지스님들은 승가교육의 전승을 위해 승가대학(강원)에 대해서는 정원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각 사찰 교육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승가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원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지스님들은 △사미계 및 사미니계 수계 자격에 있어 교구본사 주지에 의해 검증된 행자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신체갈마시 고려해 줄 것 △예비승려증의 사미증과 사미니증으로의 명칭 변경 등 승가교육의 양질화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았다.

특히 회의에서는 융건능일원 정조효행유적지 보전에 관한 100만인 서명 동참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은해사 성보박물관 '개관'

전시실 2개·수장고 갖춰… 5개 분야 전시

팔공산 은해사의 성보문화재를 통해 은해사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성보박물관이 개관했다.

은해사(주지 돈관)는 5월 2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열고, 사찰이 소장한 성보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했다.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460㎡ 규모의 전면 9칸, 측면 5칸의 'ㄱ'자형 1층 건물로 2개의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췄다. 2개의 전시실은 사찰역사, 불교조각, 회화, 공예,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일타 스님(1929~1999) 유품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유물이 전시 중이다.

박물관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큰 글씨로 알려진 '불광(佛光)'을 비롯해 보물 제1604호 영천은해사순치3년명 금고 및 금고거와 경북도유형문화재 제342호인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등 205건 540점 성보문화재가 교환 · 전시된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해사 본말사 및 산내암자에 소장돼 있던 중요한 성보문화재의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시를 위해 1996년부터 불사를 시작해 10여년 만에 불사를 회향하게 됐다"며 "앞으로 은해사를 찾는 대중들에게 본말사 문화재 및 성보를 소개함은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관식에는 문도대표 혜인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진현 경북지방경찰청장,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손무현 육군3사관학교장, 이한구,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진각종 집행부 구성

28대 통리원 · 11대 교육원

진각종 제28대 통리원 집행부와 제11대 교육원 집행부가 구성됐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5월 1일자로 총무부장 겸 진각대학원장, 밀교신문 편집인에 서울교구청장 겸 남부심인당 주교 수성 정사를 임명했다. 또 재무부장에는 대구교구청장 겸 희락심인당 주교 관천 정사, 포교 · 문화사회부장에는 前 포교부장 겸 밀엄심인당 주교 덕정 정사를 임명했다.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원 교법부장에는 前 통리원 재무부장 겸 명선심인당 주교 지정 정사를 임명했다.

혜정 정사는 또 통리원 기획국장 겸 국제불교연구소장에 정정심인당 주교 상명 정사, 전산국장에 길상심인당 주교 수혜 정사, 포교국장에 불정심인당 주교 범주 정사, 문화사회국장에 법상심인당 주교 대원 정사를 임명하고 진각대학원 교학처장에는 경전심인당 주교 혜덕 정사를 임명했다. 김성우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법공 성운
부종정 법성 혜암
원로원장 법각 지오

총무원장 청송 청파
선원장 성관 행운
종정사서실장 성득
원로위원

총무부장 대월 동산
감찰부장 동암 원효
포교부장 운봉 혜공
문화부장 보공 인중
교육부장 동담 백천
선원부장 덕진 도광
사회부장 성해 도균
감사부장 도봉 경운

서울교구원장 도현 무하
경기북부교구원장 덕진 도광
경기남부교구원장 지공 도월
강원교구원장 운성 정고
충북교구원장 도환
충남교구원장 도원
경남교구원장 영산 동우
부산교구원장 동만 동조
경북서부교구원장 도균 성해
울산교구원장 도우 승삼

종회의장 성관 현각
종회부의장 도환
종회의원 승삼 도우
종회의원 도경
종회의원 동성
종회의원 지안 공허
종회의원 도광
종회의원 경운
종회의원 백련 동담
종회의원 운봉 혜공
종회의원 인중 보공

※ 종도모집 : 함께 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 모십니다.

■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 302-81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84-6 13길 42호
전화 042)222-6522 / 팩스 042)535-5522

■ 종단법인 사무소 : 621-893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 팩스 055)336-7070 / 핸드폰 011-595-6522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과 최강의 양택 발복법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 · 저혈압, 아토피, 목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가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 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빙의, 귀접,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 발복 능력자가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본성을 관하는 비법!

부조화로 고통 받는 존재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고 조정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환원하는 비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방식으로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전화주세요 02)511-5945 / 010-9336-2698

생태 귀농 실천 작은마을 '첫삽'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지구 선정… 2010 완공

남원 실상사 인근에 생태교육문화 공동체 마을이 세워진다.

'인드라망이 함께하는 지리산 작은마을'(대표 도법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4월 25일 실상사 작은학교 대강당에서 남원 '백일지구 전원마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4월 25일 백일지구 전원마을 기공식에서 귀농 입주자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밝히고 있다.

'지리산 작은마을'로 이름 붙여진 백일지구 전원마을은 2007년 1월,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지구로 선정돼 14억 여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실상사 인근의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일대 2만6360㎡(8000여평)에 걸쳐 조성되며 2010년까지 완공돼 20가구 70여 명의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해 입주하게 된다.

지리산 작은마을은 생태적이고 소박한 귀농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가구별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설치된 마을은 전체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지 않고 생태발효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며, 마을 내 중수시스템을 설치해 처리시설을 거친 생활하수는 텃밭농사나 조경 등에 다시 쓰인다. 입주민들은 생태홈스테이사업과 약초 산나물재배, 산야초 효소 및 전통차 생산, 고랭지 배추, 산고사리 등을 재배해 마을 자체 재정자립까지 이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하 '실상사 귀농학교'와 중등과정 대안학교 '실상사 작은학교'가 지리산 작은마을이 뭇생명들과 상생하는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문화공동체 로 자리매김하도록 입주민을 도울 예정이다. 도법 스님은 지리산 작은마을 홈페이지(www.jirisane.org)에서 "실상사, 귀농학교, 작은학교, 한생명 등의 인연으로 이곳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에 이어, 지리산 전원마을에 들어와 살게 될 여러분과의 만남도 기대된다"며 "살다 보면 간간히 크고 작은 소음이 들리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낮추고 비워 나눌 줄 안다면 자신이 바라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법 스님, 실상사 주지 재연 스님, 최중근 남원시장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기공식에서 이강래 국회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리산댐의 조성은 남원시와 지리산에는 치명적이다. 남원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막아나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개사과·재발방지"

법당서 이주노동자 단속?

4월 25일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천출입국사무소가 단속을 벌인데 대해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보림)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5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종교시설은 이 사회 소모품인 이주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강조하며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연등을 만들던 불자 이주노동자에게 무자비한 단속을 벌인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 2553년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이 주관한 서울 조계사 법요식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출 · 재가 대표자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정관계 인사들, 오스왈도 파딜랴 주한 교황 대사, 독일 · 몽골 · 캄보디아 · 네팔 · 우크라이나 대사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케이블카 설치 반대합니다"

연관 스님 등 8人 천왕봉서 릴레이 시위



5월 4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린 지리산 지킴이들. 왼쪽 네 번째 연관 스님, 다섯 번째 종걸 스님. 사진제공='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스님을 비롯한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 8명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환경부 케이블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관 스님(前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종걸 스님(前 화엄사 주지), 지리산 지킴이 함태식옹, 치밭목대피소 지킴이 민병태씨 등은 5월 4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24일까지 천왕봉 정상에서 1명 이상이 침낭을 이용해 비박(야외에서 잠자는 것)하는 등 밤낮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로 등산객들에게 환경부의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과 지자체의 앞다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설치 반대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연관 스님 등은 이날 릴레이 시위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탯줄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영산으로 보존해야 한다. 생태계 최후 보루인 지리산을 비롯한 산들의 뭇생명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한편, 케이블카 대책위는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지리산 반대쪽 봉우리인 노고단에서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케이블카 대책위 측은 노고단뿐 아니라 설악산, 서울 정부중앙청사 등에서 1인 시위와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日 평화헌법 제정 한·일가수 콘서트

나눔의집, 불교여성개발원 등과 협약 체결

일본 평화헌법 제정일을 맞아 위안부 쉼터가 한일가수 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5월 3일 광주 나눔의집 마당에서 한일가수 초청평화콘서트를 개최했다.

5월 3일은 1947년 일본이 전쟁 과오를 반성하며 '육해공군 및 기타전력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로, 이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콘서트에 참가한 일본 가수 60여 명은 일본 헌법9조에 멜로디를 붙여 한국말로 노래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지난 아픔을 녹였다. 한국에서는 한영외고와 경희대 공연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풍물공연과 비보이 아트를 선보이는 등 자리를 빛냈다.

2006년 제1회 나눔의집 평화콘서트를 개최하고 반전 · 반핵 평화운동에도 앞장서온 일본가수 기타가와 테츠(55)씨는 "30년 동안 평화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를 접하게 됐다. 많은 일본인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눔의집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을 비롯해 한국정신문화연대 등 불교, 여성인권 4개 단체와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여성불자 108인회 김인숙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여성인권활동 공동추진 △전문 자문 협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협력 등을 다짐했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아시아 아이들에게 학교 지어줍시다"

JTS · 길벗 명동서 캠페인… 탤런트 배종옥 · 노희경 작가 등 동참

JTS(대표 유수)와 방송 · 영화 연극인 사회봉사모임 '길벗'(총무 노희경 · 방송작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 명동축제 특설무대에서 아시아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탤런트 배종옥을 비롯해, 노희경 작가, 탤런트 김여진 한지민 윤소이 등 JTS홍보대사를 비롯해, 한지승 감독, 최다니엘과 서효림, 전예서, 모델 김영광과 시호 등 길벗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아시아 어린이 교육사업에 동참한 JTS 홍보대사 탤런트 윤소이씨와 노희경 작가의 미소가 아름답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연예인들은 직접 싸인한 JTS파페포포 후원엽서, 돼지저금통 1천개를 나누는 등 모금현장에서 시민, 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모금액 전액과 12월 19일까지 돼지저금통으로 모아지는 성금은 인도 둥게스와리와 필리핀의 만다나오 지역 등 아시아 오지 마을에서 JTS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도법 스님 5월 28일부터 '승만경' 강의

생명평화 운동을 벌이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5월 28일부터 11월까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에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여성 부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승만경>을 강의한다.

도법 스님은 참가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성 출 · 재가자의 성불과 현대사회의 여성문제를 고찰할 예정이며, 오는 8월에는 전북 남원 인드라망수련원(귀정사)에서 특별강좌 '<승만경> 야단법석' 도열 계획이다.

수강료는 7회 모두 수강시 5만원으로 1회 수강비는 1만원. (02)576-1886

노덕현 기자

영천만불사 방생법회 & 팔공산 갓바위 기도회

성불하십시오. 아름다운사찰 영천만불사 용천지에서 방생법회행사와 신비한 갓바위 부처님을 뵙는 행사로 불교기업체인 한국영농조합의 후원으로 단돈 10,000에 준비 하였습니다.

최신형관광버스왕복+아침 · 점심공양+방생법회+팔공산 ₩10,000

▶출발일 및 장소 :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장소에 출발가능(30명이상)
▶오전8시출발~차내에서 찰밥으로 아침식사~협찬사(30분간)~영천만불사도착~방생법회행사 및 사찰답사~점심공양~팔공산 갓바위
◈ 만불사 방생법회 코스外 에도 경주감포 · 충주호 · 동해추암.. 등 다른지역 방생행사도 가능합니다.



(주)SK투어 불교사업단 ☎1644-9446

~불교삼사순례~

동학사 · 갑사 · 계퇴사

₩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동학사~중식~갑사~계퇴사~도착

송광사 · 선암사 · 쌍계사

₩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송광사~중식~선암사~쌍계사~도착

일주문



교육 지원지 선정차 네팔 방문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5월 14일~18일 교육 지원 대상지 선정차 네팔 카트만두 지역을 방문한다.



어버이날 기념 잔치 열어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현성정사 주지)은 5월 6일 현성정사에서 홍은동 거주 어른 150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기념 잔치를 열었다.



통일부 상생포럼서 남북교류 제안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4월 28일 통일부(현인택 장관) '상생 공영 포럼'에서 남북긴장관계완화와 종교교류를 제안했다.



제4회 이주민 초청 잔치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은 5월 17일 제4회 이주민 초청 잔치를 실시해 한국전통 문화체험,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얀마 선원 10주년 법회와 '특강'

남양주 미얀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5월 17일 선원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여름 위빠사나 특강'을 실시한다. (031)559-531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미타사 정수암 주지)이 4월 22일 '제1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청소년 비만 사찰음식이 최고

파라미타 사찰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동 · 청소년의 비만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사찰음식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식생활문화 개선에 나섰다. 1박2일 주말 템플스테이를 통해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고 영양 교육과 함께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발우공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파라미타협회는 5월 30~31일 서울 봉은사, 경기 백천사에서 진행하고 △부산파라미타협회는 5월 30~31일 경남 대원사 △대전파라미타협회는 6월 6~7일 연기 연평사 △충북파라미타협회는 5월 23~24일 제천 덕주사 △경남파라미타협회는 5월 16~17일 진해 대광사 △전남파라미타협회는 5월 23~24일 하동 쌍계사에서 실시한다. (02)723-6165 이상언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사찰 만들 터"

화엄사 주지 재선된 종삼 스님



"한국 제일의 문화사찰로 거듭나겠습니다."

4월 2일 화엄사 산중총회에서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주지에 재선된 종삼 스님(사진)은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종삼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前 주지 스님들이 선방을 찾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이 화엄사이다. 본의 아니게 집착을 떨치지 못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다"면서도 "참회하며 본사 발전과 문중화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가람수호와 불사도 중요하지만 사찰이 대중들에게 접근해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엄사를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사찰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화엄사는 문화사찰로 변모하기 위해 올해 10월 25일 예정된 제4회 국제영성음악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리산 인근으로 귀촌한 문화인들간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종삼 스님은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를 교구의 국제화 및 문화사찰로서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마스터플랜도 소개했다.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거점사찰로 지정돼 진행 중인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완공하고, 여수세계박람회를 한국전통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스님은 교구 내 사찰들의 템플스테이 사업을 한단계 발전시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이룰 계획이다.

"교구 차원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사성암, 도림사, 향일암, 홍국사 등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교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교구사찰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템플스테이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교구 전 지역 사찰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제공될 사찰안내로드맵 등 인터넷 홍보 기반을 비롯해, 여수지역 교구 내 사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사찰음식 제공, 여수 흥국사를 거점으로 한 승병들의 활약상을 담은 뮤지컬 공연 등 '문화사찰 화엄사' 브랜드에 걸맞는 스님의 계획은 다채롭다.

두 번째 화엄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종삼 스님의 임기는 기축년 하안거 결제일인 9일 시작돼 2013년 5월까지다. 조동섭 기자

–KBS다큐 '선의 황금시대'를 보고

"무상 선사 조명 좋았으나 역사적 규명 미흡"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무상 대사'를 보고 몇 가지 느낀 소감을 적으려 한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대중교육을 끌어올리고,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면 흥미 위주는 자칫 사실을 오도하기 쉽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의 역사교육을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역사인물을 평가하는데 충실한 문헌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무상 선사의 평가를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는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

1. 무상 선사는 중국에 건너간 어느 신라 구법승보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불교 활동에 큰 공적을 남겼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풍부한 행적의 문헌을 남겼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상 선사의 행적은 그를 가장 확실히 살피는 요건이 된다. 행적에 따라 3시기로 나뉜다.

2. 무상 선사는 신문왕의 4번째 왕자 사종일 가능성이 크다. 성덕왕으로 잡을 때는 입당 연대와 가족관계가 부합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고, 기백있는 소유자였다. 더욱이 당나라에 가서는 항상 그의 곁에는 신통이 함께 했다.

3. 무상 선사는 수행 교리 홍교의 3박자에 경계를 두지 않고 넘나들며 최고 지선의 경지를 창출했다.

4. 수행은 북종의 두타행을, 그가 주창한 삼구용심(三句用心)은 남종의 심요(心要)를 닮았다. 즉, 무념이 혜능, 신회가 제창한 수행방법을 주로 했기 때문에 '돈교법'이라 불렀다. 무상은 남북종에 속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는 독자성을 유지했다.

5. 선종 7종 가운데 정중종은 2번째 큰 세력이었다. 이 말은 초기선종사에서 대표된다는 뜻이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사천(검남)의 정중종이 외연적으로 티베트와 남조국까지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시켰다.

6. 무상은 정중종을 확립했고 홍교의 중심에 '정중본원'을 세웠다. 그의 법호가 정중은 아니다. 정중종은 사찰 이름에서 붙여졌다. 사액이 법호나 개인의 이름에서 붙여진 경우는 오직 장경사(章敬寺) 뿐이다. 사천에 많은 사찰을 중창한 것은 현종(명황)과의 만남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폭 넓은 시주(檀越)에서 사찰, 종탑, 작은 난야가 세워졌다. 사천에서 불사는 단연 으뜸이다. 정중종의 본부는 정중사이다. 대자사는 무상 선사가 중창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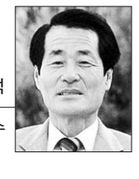
7. 무상 선사가 나한의 성인에 속한 것은 현종(명황)을 포함해 상대를 설복시키는 타고난 재주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6통의 신통력이 밑거름이 돼 폭넓게 돈황, 티베트와의 남조국까지 전파됐다. 그 핵심에 자비심으로 자세를 낮춘 무상은 중국 인민에 다가갔다.

8. 다선일미와 무상 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거의 동시대에 중국에 갔던 성도의 또 다른 김화상, 북영주의 무루선사, 구화산 김교각 스님을 잇는 삼각형 지역에서 활동한 신라 고승을 보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9. 일본의 조동종은 청원계의 동산양개를 원조로 하기 때문에 무상 선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선의 분위기보다는 '무상오경전'의 격식이 오위방편과 닮았다는 점 외에는 선법 자체가 다르다. 오히려 의식에 있어서 개혁적인 보당사 무주로 이어지는 선법을 강조해야 했다.

위의 아홉가지 과제를 풀어내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채금전(采金田)과 '시라'를 등장시킨 것은 진행순서에서 볼 때 씁쓸한 느낌을 받는 장면이었다. 또, 마조도일 선사가 무상 선사의 제자인가는 중국 측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문헌과 선맥이 서로 맞닿았는가를 말해야만 했다.

특히 무상의 입당시기는 그의 입적에서부터 역산하면 대략 4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변인석
前 아주대 교수

'한국동방학회' 창립법회 · 학술대회 개최



한국동방학회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원장 이형환)는 5월 8일 동방대학원대 대강당에서 학회 창립법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동방대학원대학 정상욱 총장이 회장으로 추대됐다. 조동섭기자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 세미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경 스님(동방불교대학원대학) 등이 발표했다. 조동섭기자

능인복지관 '노인생명페스티발' 개최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은 5월 7일 저소득 독거노인 자살예방 프로젝트 '노인생명페스티발'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250여 명의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02)571-2988 이나은기자

대불련 '불교문화체험 한마당'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는 5월 5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 맞은편 포도대장 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회향 및 어린이날 맞이 '대학생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상언기자

종로경찰서·소방서 방문 봉축위문품 전달



조계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연제)와 조계종 호법부는 4월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종로전경에게 봉축위문품으로 500인분의 떡과 110kg의 삼겹살을, 종로소방서에 300인분의 떡을 전달했다. 이상언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 2009년 5월 18일(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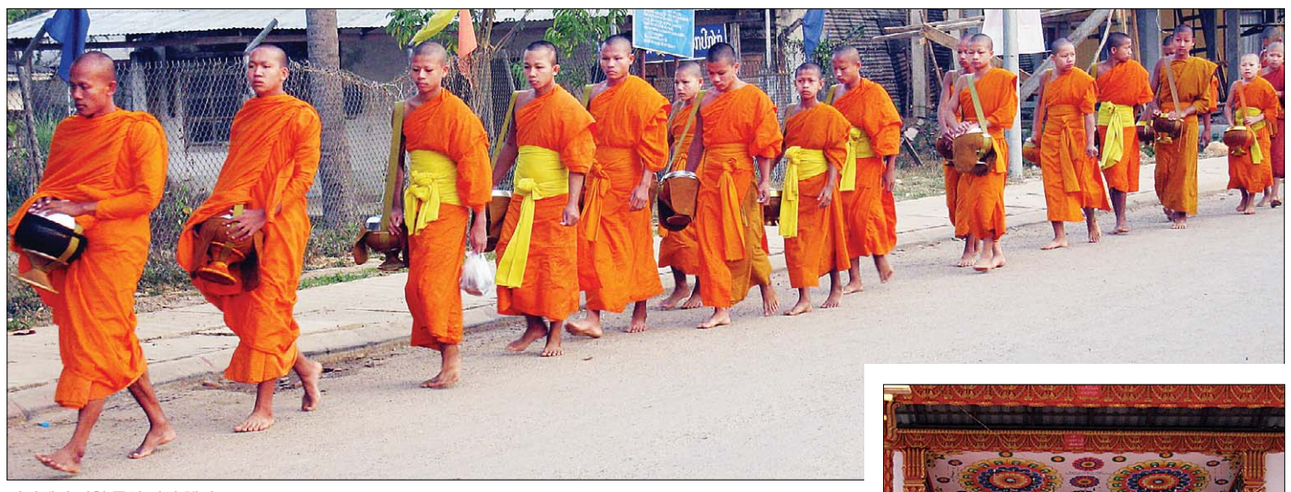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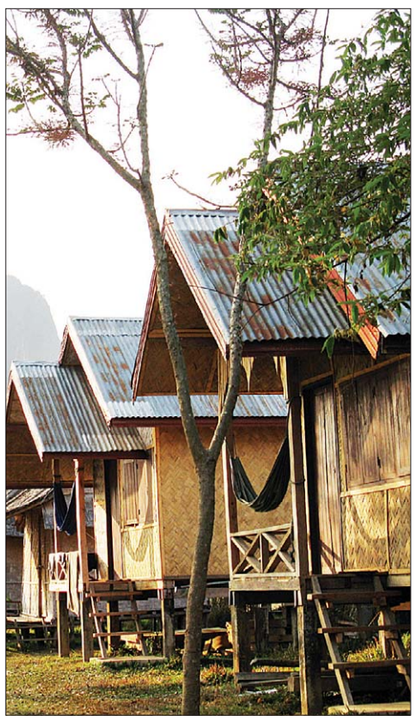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④

라오스 자연·국민성 순수한 나라로 '정평'


방비엥의 아침 공양 탁발 행렬.


방비엥 사원에서 신도들이 아침 공양을 올리는 모습.


방비엥의 산수. 목조 방갈로.

수천년 역사와 문화 지킨 미얀마인과 불교승단에 '경의'
사회 · 자본주의 공존 라오스 생활수준 등 태국과 비슷

#미얀마 여승 정결한 인상줘

2주간의 짧지 않은 미얀마 여행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중요지역을 가지 못해 아쉬웠다. 무속정령신앙의 고향 바간의 뽀빠산. 미얀마 최고의 여름 휴양지이며 수상마을로 유명한 인례 산정호수. 바고의 짜익띠요 황금바위며 인도 벵갈만과 접해있는 나팔리 해변 등이다.

마지막 날, 깐도지 호수공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와 닮은 샨족 식당 주인은 내가 전통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 김치를 꺼내오며 매우 반가워한다. 어떤 동질성을 느낀 것일까.

성격이 매우 화통하다. 한참 호수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7~8명의 여승들이 양산을 쓰고 지나가므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니 순순히 응한다. 소승불교지역에서는 여승들이 우리네 비구니스님들처럼 독립된 위치에 있지 못하다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며 정결한 인상이어서 최고의 여성상을 보는 느낌이다.

힘들고 불편한 여행을 마쳤다는 해방감과 아울러 마음이 뿌듯하다. 수 천 년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지킨 미얀마인들과 영국 식민지를 비롯한 군사독재정권에 큰 희생을 무릅쓰고 항거 투쟁한 미얀마 불교승단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으로는 1700년 고구려 북방불교와 2000년 가야 남방불교의 역사를 함께 갖고 있는 한국불교가 500년 조선조 유교 왕조의 모진 탄압과 질곡을 이겨냈으나 근대사 100년의 외세침략, 식민지 억압, 독재정권에 한결같이 대응하지 못했음을 불교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 본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방비엥의 자연

오전 11시쯤 태국 수완나 폼 버스터미널에서 농카이행 티켓을 예매했다. 태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길은 농카이 쪽이 가깝다. 예전에는 미얀마에서 태국 라오스로 가는 육로행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직 항로밖에 없다.

카오산 배낭여행 천국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야간 버스로 북동쪽 농카이에 도착했다. 아침 6시 30분, 10시간이 걸린 셈이다. 국경 사무실에서 비자를 받아 버스를 타고 20분, 어느 덧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이다.

인구 30만 명의 작은 도시이며 아늑한 메콩강을 끼고 있는 비엔티안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현대적인 도시다. 물가가 태국만큼 비싸 값싼 게스트 하우스를 찾느라 불볕더위에 애를 먹었다.

짐을 풀고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한국 여행사가 있어 여행정보를 안내받았다. 그 직원은 라오스가 작지만 물가가 비싸고 생활수준과 소득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영향권으로 미얀마와 비슷하다고 여겼으나 그것은 선입관이고 사실은 태국과 비슷함을 일주일 여행동안 알게 됐다.

남한의 두 배 정도 크기에 인구600만이며 국민의 95%가 소승불교를 신봉한다. 국토 3분의 2가 산악지대로서 한국과 지형이 비슷하다. 개발이 안 된 덕분에 원시림과 야생동식물의 천국이라 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라오족이 절반. 타이족이 20%, 나머지 47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방이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와 접경지대인 탓에 역사적으로 지배와 영향을 받았고 근대에는 불란서의 베트남 식민지와 맞물려 식민지와 미국의 폭탄 침공을 받았다. 살아남은 라오스는 평화를 사랑하고 느긋함이 덕목인 나라다. 라오스가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덜 알려진 만큼 자연환경과 국민성이 지구상에서 제일 순수한 나라라고 평가 받는다.

#미얀마 라오스처럼 남북관계도 변화오기를…

14세기 중반, 캄보디아의 도움으로 백만 코끼리를 상징하는 최초의 왕조 란쌍왕국이 건국되고 17세기에는 캄보디아와 함께 동남아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시기 파응움 왕은 소승불교를 국교로 삼고 파방 불상을 라오스 국가의 상징으로 정했는데 왕국의 옛 수도 루앙프라방은 불상의 이름이다.

중국 · 베트남 ·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주의와 프랑스 · 미국이 지원하는 반공식민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은 라오스는 사회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1980년대의 중국 ·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의 노선을 택했다. 중국 · 베트남 · 태국과의 교역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미국의 30년 경제제재에서 풀려나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이 잘 산다고 자랑하지만 남북문제에서는 말문이 막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상황으로 남북이 다 같이 불행하다. 좌우파 독재정권의 유지라도 좋으니 북한 체재에 변화가 생겨 제발 미얀마 라오스 수준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관광 교역 투자의 완전개방과 동과 서를 잇는 신실크로드의 육로 철로를 남북이 공동개발한다면 남북의 번영과 평화공존은 물론 세계평화의 기여는 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늦은 오후 6000여 불상이 모셔져 있는 왓 시사켓, 라오스의 상징인 장엄한 파탓루앙사원, 파툭사이의 개선문, 씨앙쿠앙의 거대한 부처공원을 참배하고 매콩강변의 노천식당에서 고기잡이 어선과 갈대숲을 바라보는 정취가 특별했다. 이곳 역시 웨스턴 여행자들의 겨울 휴양지. 강변의 수 킬로에 달하는 호텔, 식당, 노천카페를 그들이 점령하고 있느니 말이다.

#한적한 산골 방비엥 관광지로

계림산수와 하롱베이처럼 수려한 산과 강이 있는 방비엥은 본래는 한적한 산골이나 관광지로 개발돼 이곳이 태국인지 라오스인지 분간이 안 간다.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3시간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게스트 하우스와 인터넷 까페, 슬집 식당이 즐비한 레저 휴양 탐험지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동굴 탐사, 암벽등반, 래프팅, 튜빙 등을 즐기기 위해 일본, 한국 젊은이들도 적지 않게 온다고 한다. 한국 여성 여행자들을 여러 명 만나 여행담을 주고받았다.

라오스 전통 목조 주택의 정갈한 방을 싼 값으로 예약하고 강변을 산책했다. 메콩강의 지류인 쏭강은 폭이 좁으나 길며 물살이 세지 않아 물놀이에 안성맞춤이다. 대나무로 지은 방갈로와 리조트는 가족 휴양지로 적당하다. 마치 태국의 북부 산간마을 파이와 흡사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웨스턴 여행자들이 많이 오다보니 할리우드의 저질영화나 마리화나, 시끄러운 랩 음악이 판을 치게 돼 평화롭고 깨끗한 마을이 태국의 관광도시처럼 타락해 간다는 탄식도 있다.

열대기후로 낮에는 뜨겁다가 저녁이 되면 가을 날씨처럼 서늘해진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 번화가 한 모퉁이에 한국 식당이 있어 들렸으나 저녁에는 술만 판다고 해서 실망했다. 경상도 고향의 주인아주머니를 만나 라오스 사업과 이곳 방비엥의 생활, 한국인 여행자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사쿠라식당이라는 간판이 있어 물었더니 중국 운남성 리장의 사쿠라 한국식당이다. 중국인과 결혼한 부산아가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그 식당주인을 보니까 뜻밖이다. 아마 사업 확장이 여기까지 미친 것 같다.

 # 산골마을의 닭 우는 소리에 잠깨

닭 울음이 시간마다 일정한 것을 보면 이곳은 아직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것일까. 새벽 4시, 5시, 정확하게 장닭이 울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꼬끼오' 소리가 들린다. 한국에서는 벌써 잊어버린 소리인 자연시계다. 6시 마지막 닭 울음에 이어 마이크음악이 마을을 뒤흔든다. 6시 기상 신호다. 미얀마에서도 그랬었다. 외국여행자들은 밤늦게 놀고 아침 늦게 일어나지만 미얀마 라오스인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곳의 음식은 라오스 태국 중국 서양의 퓨전 음식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여기서 가까운 커피농장이 있어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생생하다.

다음 날 아침 1㎞ 떨어진 사원으로 아침산책을 했다. 가는 도중 열대여섯 명의 스님들이 아침 탁발을 하는 광경을 지켜봤다. 일렬로 나란히 기러기처럼 정돈된 모습에서 경건함이 묻어있다.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목조 법당 옆의 시멘트 큰 강당에서 신도들이 아침공양을 바친다. 남방불교는 거의 국교적인 위치에 있지만 부처님 당시의 수행 규칙에 따라 하루 2번 식사에 오후 불식이 일반화 돼있다. 미얀마처럼 소년 승려들이 배가 고파서 저녁에도 탁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예외다. 또 무소유의 계율에 따라 돈을 받아도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생활에 자족하고 어려운 민중들을 위해 보시, 회향하는 관행이 보편적이다. 계율과 교리보다 자본주의 법칙을 더 따르는 한국 승려의 현실과 개인에게 맡길 뿐 승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 종단의 규범과 대비된다. 방비엥의 승가대학이 있는 큰 사원에서 젊은 승려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라오스 불교의 특징을 묻자 그 중 한 승려가 남방불교는 테라바다(Theravada) 불교로서 상좌부 근본 불교를 신봉한다고 말했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 1기, 2기 전수교육에 참가하신 재가 및 스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송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 (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하였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괘씸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간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제 3의학 아카데미"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昨今의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상 저촉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 인접)
• 교육기간 : 5월 18일 ~ 5월 23일 [5박 6일]
• 전수비용 : 200만원 (숙식제공) • 계좌번호 : 농협 136-12-537835 [예금주 : 김재정]
• 전수교육 안내 032)937-7182 / 010-5721-2266 전국대표 1588-7638 WWW.HANVIT.TV

주최 : 제3의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지원센타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센타설립문의)

제 3기 선착순 12명

•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턱관절장애, 백내장,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 외과적영역 목,허리디스크,안면마비,모든 종류의 두통,현운,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항강통,어깨결림,오십견,테니스 골프 엘보우,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악성무좀,중풍후유증,뇌성마비,생리통,채머리증,족저통,수전증,족저통,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 각종수련원, 단식원운영자 각종 의료기흥보관 운영자 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미륵사지 사리 친견법회 익산서 봉행”

익산시 긴급대책회의서 결의… 조계종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

“익산 미륵사지 진신사리 친견법회는 반드시 익산에서 봉행돼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사리의 친견법회 개최 장소를 두고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 등이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익산시는 5월 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이한수 시장 주재로 ‘익산 미륵사지 문화유산 지킴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익산사암연합회장 우성 스님, 숭림사 지광 스님,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을 비롯한 익산 불교계 관계자와 조배숙 · 이춘석 국회의원, 배승철 도의원, 장오준 시의회부의장,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 유기상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등 관계 기관 ·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익산시는 5월 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 미륵사지 문화유산 지킴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조계종 총무원 등이 미륵사지가 있는 익산 지역이 아닌 서울 조계사 등에서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익산시는 1월 14일 사리장엄구 발견 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20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을 관광상품화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이 미륵사지석탑 사리 친견법회를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법회로 개최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를 통해 사리장엄구를 타지역에서 전시 · 보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 불교의 성보일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임으로 사리 친견법회는 사리가 발견된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먼저 봉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역 정서를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사리 친견대법회의 익산 개최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익산미륵사지 석탑 사리친견법회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조계종 문화부가 지역 교구본사인 김제 금산사와 조율해 의견을 모은 후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윤 5월을 맞아 익산 미륵사지에서 생전예수재를 겸한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범어사 통도사 삼광사 등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일 범어사와 부산지역 주요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2일 대웅전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다도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 관욕, 발원문, 봉축사, 봉행사, 축사, 법어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문화예술제 및 점등식이 이어졌다.

정여 스님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은 부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누구나 똑같은 청정한 불성 광명을 갖고 있지만 어리석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라며 “‘나’라는 한정된 마음을 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자”고 설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도 같은 날 설법전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적멸보궁 헌다례, 장엄등 경연대회, 봉축연등 점등식 등을 진행했다. 4월 말부터 일주일간 통도사 경내 먹거리 마당, 전통놀이 마당, 공연 마당, 일주문부터 산문까지 제등행렬 등을 마련해 지역 시민과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에 앞서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1일 대웅보전 앞 광장에서 봉축전야 대법회를 갖고, 이어 2일 오전 11시 봉축 법요식을 개최했다.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국운융창기원, 헌향 · 헌화 및 관불, 봉행사, 봉축사, 봉축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대한불교법연원도 2일 부산 연제구 본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요식에는 지역 정 · 재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가톨릭 예루살렘원장 왕영수 신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정영문 목사, 이슬람교 이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하산, 천리교 허진호 목사, 일본 신사 오가와 신주 등 세계 종교지도자 및 신도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관욕을 하고 있다(위). 삼광사에서 등을 달고 있는 불자들(아래).

“윤산 훼손·목탁소리도 소음될 것”

덕운사,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항의’

부산 덕운사(주지 경산) 임야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의 반려를 주장하며 덕운사 주지스님과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부, 신도들이 5월 6일 금정구청을 항의방문했다.


덕운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은 5월 6일 금정구청을 항의방문했다.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부 관계자는 “금정구민의 식수원인 윤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40~5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대량 벌목의 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조석예불 때 목탁소리마저도 소음 등으로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서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환경을 해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덕운사가 자리한 금정구 부곡2동 산복도로 인근에는 ‘ㅊ복지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연면적 2508㎡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고봉복 금정구청장은 “덕운사 측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아미타여래불 점안 “서원 이루길…”

광주광역시 본촌동 소재 대원정사(주지 일화)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조 아미타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아미타여래불은 2007년 6월 원인 모를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됐을때 건물 안에 안치돼 같이 소실된 청동 아미타여래불을 석조로 복원한 것으로 현재 복원불사가 진행 중인 대웅전 뒤쪽에 봉안됐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36호 김옥수 불모가 조각한 불상은 높이 8자(8m 40)의 황등석 재질로 조각됐다.

일화 스님은 점안에 이은 봉행사에서 “아미타여래불은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룬다는 서원을 갖는 부처님이다. 광주의 많은 불자들이 이곳에서 많은 기도와 정진을 통해 저마다의 큰 서원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 모시고 잔치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제37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경로행사를 개최했다.

경로행사에는 가기산 서구청장, 지자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했다.

행사에서 탄방초교 걸스카웃 70여 명은 이날 참석한 400여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어버이날노래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다.

장곡 스님은 “불교의 근본은 효”라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정진으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정락 스님 초청 법회

영주시청법우회(회장 주정례)가 4월 30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前 포교원장 정락 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봉행했다.


영주시청법우회는 4월 30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주시청법우회가 주관하고 영주시 4 · 8봉축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법회에는 정락 스님, 도기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 도륜 스님(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주영 영주시장, 장대봉 영주경찰서장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락 스님은 법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보살로서 자비심으로 항상 베푸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상정득의 깨침을 위해 위없는 수행정진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자세와 건강, 능력, 자유, 사랑, 기쁨이 있는 행복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2003년 3월 창립한 법우회는 현재 108명의 회원으로 매월 정기법회, 초파일 주간 큰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개최하고 연 2회 사찰 순회법회와 성지순례, 불교 문화재 가꾸기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심우원’ 개관

풍기 거사불자 회관

생활불교 · 실천불교에 앞장서온 풍기지역 법우회 · 구도회 · 달마회 재가불자들이 재가불교회관을 건립하고 거사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4월 19일 경북 풍기지역 거사 불자들은 15년 동안 신행 공간 마련에 원력을 모아 창립 35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재가불교회관 ‘심우원(尋牛園)’ 개관식을 봉행했다.

120여 명이 활동 중인 거사들의 신행모임인 법우회 · 구도회 · 달마회는 법회장소가 없어 20년 간 유랑법회가 불가피했다. 이에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때 신행공간 마련에 원력을 세우고 약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여법한 자신들만의 법회공간을 신축했다.

이상언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5. 23(토) 오후 1시부터 ~ 5. 24(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낙태. 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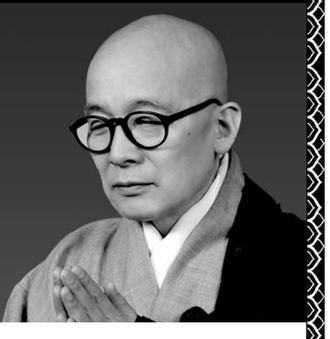
아가야! 미안하다…
세상몰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회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종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빚을 덜어 드리고저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벽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종교적 위령재 봉행

▶대 상 : 낙태 · 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형 식 : 49재 천도의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건봉사포교원 **벽 운 사** www.bwjisan.com ☎02)979-0108, 02)971-1544

“나비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요”



‘2009 서울 나비곤충축제’를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고 있는 서천일 대표.



동심과 자연의 만남 서울서 열리는 ‘미니’ 함평 나비 축제 개최

“불교는 자연의 종교,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 접하는 계기 되기를…”

배추흰나비, 호랑나비가 노란빛 유채꽃밭 위를 훨훨 날아다닌다. 병아리들은 무리지어 어미닭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오리들은 연못가를 맴돌다 일없다는 듯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닌다. 토끼 한 마리는 넓은 유채꽃밭과 배추밭 사이를 오가며 연한 풀들을 뜯어먹기에 정신이 없다. 서울 도심에서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만나게 된다면 그날은 고향에라도 온 듯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싶다. 시골의 목가적인 풍광을 서울 어린이회관 야외광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기에 그곳을 찾았다.

‘2009 서울 나비곤충축제’가 열리고 있는 능동 어린이 회관의 야외광장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생태축제 마당이었다.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비생태관’과 ‘곤충생태관’을 꾸며두었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을 유채꽃과 보리밭으로 조성했으며, 100m도 넘는 호박터널을 조성해 걸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주)레드천삼커뮤니케이션 서천일 대표는 “함평군에서 나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오리, 유채꽃, 호박, 보리 등을 비롯해 기술적인 노하우와 콘텐츠까지도 지원해주었다”면서 이곳을 가리켜 “축소된 함평 나비 축제”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나비생태관’에 들어가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와 닿는다. 나비는 섭씨 30도가 넘어야 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덥게 해놓을 수밖에 없단다. 나비를 쫓아다니는 아이, 자줏빛 엉겅퀴 꽃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를 지켜보는 아이, 나비의 애벌레를 관찰하는 아이 등 그곳에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천일 대표는 ‘나비생태관’의 활기찬 풍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컴퓨터 앞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른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게 하고, 인공의 숲속에 가두어버렸으니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한다.

“함평 나비축제를 서울 도심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나비 축제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생태관람 및 나비 곤충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벗어나 멀리 지방까지 가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과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 나비곤충축제’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이 고향인 서천일 대표는 어릴 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행복감을 도심의 아이들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마련한 장이란다.

“여러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생태축제는 어른 중심의 축제이기에 막상 아이들이 가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곤충생태관’에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등의 애벌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관’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고 싶어 해요.”

서천일 대표는 아이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네다섯 개의 관을 완전 개방하여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나비생태관’에는 살아있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돼가는 나비의 일대기를 직접 관찰하면서 나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해뒀다. 또 ‘곤충생태관’에 들어가면 야생초 사이로 메뚜기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곤충의 일대기를 공부할 수 있으며, 수서곤충과 다양한 풀벌레들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연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도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다보니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자연을 접하고 나비와 곤충들도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 서울 나비곤충축제’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이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단다.

‘나비 곤충 모형 만들기’ ‘황토천연염색’ ‘보리피리 만들어 불어보기’ ‘달걀꾸러미 만들기’ ‘맷돌 돌리기’ ‘방아 찧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둔 터이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동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서천일 대표는 어릴 때부터 불공드리러 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절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사상에 젖어들 수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불교를 통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는 것이며,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가 연결돼 있음을 배웠다”는 서 대표는 “자연과 인간 또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린 자연 앞에서 오만을 버리고 겸허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것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잠시 동안 맡아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생명체 자체가 유한한데, 내 것이라 욕심 부리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을 더없는 행복”이라 했는데, 서천일 대표는 날마다 자연과 더불어 ‘더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첫서리 맞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 · 고혈압 · 혈액순환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 브랜드 수상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잠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맞은 뽕잎**을 체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증구포의 전통제다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제로 쓰이는 실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맞은 뽕잎**은 **신선엽**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겨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맞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뽕잎차 만드는 과정


금강선원 뽕잎 / 뽕잎 채취 /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고혈압에 도움 2.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가 최고! – 부산 중구 안미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대구 북구 석현도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시게 할 정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경북 안동 김정일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경기도 용인박영철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맞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더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초주스님의 뽕잎차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
초심(구증구포뽕잎차) ~~50,000원~~ → 35,000원
발심(첫서리맞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2통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5)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5

대자대비로 중생 건지시네

[원문]
관음보살대의왕
(觀音菩薩大醫王)
감로병중법수향
(甘露甁中法水香)
쇄탁마운생서기
(灑濯魔雲生瑞氣)
소제열뇌획청량
(消除熱惱獲淸涼)
–파계사 원통전

[번역]
중생병 고치는 큰 의사이신 관세음보살님
감로수 병속에 법수 향기로워라
마귀의 구름 벗겨 버리고 서기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번뇌 씻어 버리고
청량함을 얻게 하시네.

[선해(禪解)]

세상의 모든 소리 듣고 살펴보시는 관세음보살
중생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

우리는 부처님을 두고 성인(聖人)이라고 부른다. 성인이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인간을 말한다. 처음에는 부처님도 성인이 아니라 우리 중생같이 고통을 받고 감정의 굴곡에 쉽게 흔들리는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출가하여 치열하고 쉼 없는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으로 접목 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은 몸소 체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우(遇)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이란 먼 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바로 마음이란 내면성(內面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내면 속에 숨겨진 자질을 발견하여 이를 꾸준하게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고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 가꾸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주련여행은 팔공산 파계사의 원통전이다. 이 사찰은 갓바위로 유명한 대구 팔공산(八公山)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동화사(桐華寺)의 말사로서 신라 애장왕(804년)때, 심지(心地)가 창건하고, 1605년(선조 38) 계관(戒寬)이 중창하였으며, 조선 숙종(1695년) 때 현응(玄應)이 삼창하였다. 특히 영조(英祖)의 출생과 관계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숙종의 부탁을 받은 현응은 농산(聾山)과 함께 백일기도를 하였고, 기도가 끝나는 날 농산이 숙빈(淑嬪) 최씨에게 현몽하였으며,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후일의 영조였다는 것이다.

숙종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파계사 주변 40리 이내의 조세(租稅)를 받아쓰라고 하였으나 현응은 이를 거절하고 선대의 위패를 모시기를 청하였다. 이는 지방 유림(儒林)의 행패를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불상에서 나온 영조의 어의(御衣)는 이 설화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때문에 파계사는 대웅전이 없고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원통전이 중심법당이다. 이 안에 있는 목조관음보살 좌상은 보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균형미와 화려함이 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머리위의 보관은 당초무늬와 꽃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현존 당우로는 2층 누각인 진동루(鎭洞樓), 법당인 원통전(圓通殿), 적묵당(寂默堂) 등이 있고, 부속암자로 현니암(玄尼庵) · 성전암(聖殿庵) · 금당암(金堂庵) 등이 있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보물로서 구도나 형식에서 특색을 갖추고 있고 필법과 채색 또한 품격을 지닌 뛰어난 작품으로 18세기 초를 대표하는 불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관음보살대의왕 감로병중법수향: 중생병 고치는 큰 의사이신 관세음보살님 감로수 병속에 법수 향기로워라.'

파계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상인데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는 보살이다.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며, 관자재(觀自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觀照)하여 보살핀다는 뜻이다.

결국 뜻으로 보면 관세음이나 관자재는 같으며 물론 그 원래의 이름 자체가 하나이다. 보살(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성자(聖者)이므로 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제하는 구세보살(救世菩薩), 세상을 구제하는 청정한 성자 구세정자(救世淨者),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푸는 시무외자(施無畏者), 크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 되게 하는 대비성자(大悲聖者)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주련에 담긴 내용은 중생이 가진 삼독(三毒)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고쳐주는 의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씀이다. 이는 바로 현대의 의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한 마디 한 마디 전해주시는 법 또한 법수(法水)처럼 그지없이 향기롭다는 뜻이다.

'쇄탁마운생서기 소제열뇌획청량: 마귀의 구름 벗겨 버리고 서기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번뇌 씻어 버리고 청량함을 얻게 하시네.'

인간의 번뇌는 자신이 만든다. 번뇌란 곧 마음속에 든 마귀의 그림자이며 구름이다. 이를 쫓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악도(惡道)의 그림자를 벗겨내어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을 되살려 놓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길을 잃고 그릇된 길속에서 헤매다가 어둠속에 떨어지는 게 바로 중생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러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 주기 위해 스스로 중생들의 등불이 되셨던 것이다.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할 전언(傳言)이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에 헤매고 있으며 애욕의 바다에 잠겨 무지(無知)와 미망(迷妄)은 열 겹, 스무 겹으로 뒤덮여 있다. 또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동여맨 채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중생은 번뇌가 가리키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오욕에 물들고 취하여 망상을 일으켜 영구한 세월동안 괴로움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미혹을 벗어나 중생의 고뇌를 낱낱이 알고 끊어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대비(大悲)의 경계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을 적멸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최고의 진리를 45년 동안 설하셨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전언이 오늘 날 사찰속의 주련 속에 곳곳마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5

성품 본 사람이 곧 선지식

[원문]
若自明了 不學亦得 不同迷人 不能分別皂白 妄言宣佛勅 謗佛妄法 如斯等類 說法如雨 盡是魔說 卽非佛說 師是魔王 弟子是魔民 迷人任他指揮 不覺墮生死海 但是不見性人 妄稱是佛 此等衆生 是大罪人 誑他一切衆生 令入魔界 若不見性 說得十二部經敎 盡是魔說 魔家眷屬 不是佛家弟子.


'보리달마 면벽 정관지도' (유단택 作)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거나 얻을 것이 없으므로 미혹한 이와는 다르겠지만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망언을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허망한 짓이다. 그러니 이런 무리는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소리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니라. 스승이 악마의 왕이고 제자가 악마의 백성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느라 생사의 바다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의 본성도 보지 못한 이가 망녕되이 스스로를 부처라 말하지만, 이런 중생들은 일체 중생을 속여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큰 죄인이니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12부경의 가르침을 설하여도 모두 악마의 소리이고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니라.

'이런 무리는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소리이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라.'

여기서 '마구니 소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무념(無想無念)으로 용을 삼고 무주(無住: 머무는 바 없는)의 행으로써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군더더기이거늘, 어찌 생사를 초월한 도리를 모르는 이가 설한 것을 법이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백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경을 설하면 안 된다고 달마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콩이 콩나물 공장과 인연이 되면 콩나물이 되고, 두부 공장과 인연이 되면 두부가 되고, 떡 방앗간과 인연이 되면 떡고물이 되고,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면 수십 배의 콩으로 탄생되고, 시멘트 바닥에 뿌려지면 말라 없어지듯이 생사를 떠난 자리를 체로 삼고 설하지 못하면 자신도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며 가르침을 받는 자 또한 생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 먼 맹인이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끄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선지식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 또는 염불을 하고 진언을 해야 외도(外道)가 아니고 정도라는 얘깁니다. 성품을 보고 하는 수행이 아니면 모두 마구니입니다.

따라서 성품을 보지 못한 자가 '12부경(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법문하신 경)'을 설하게 되면 어두운 중생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큰 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본래 뜻을 이해하며 생사가 없는 자리를 증득해야만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마이며 이 또한 악마의 소리일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에 마음자리를 두고 정진하는 것인지를 몰랐을 때 하는 얘깁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자리를 떠난 생각은 모두 번뇌이고,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진짜 부처님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임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를 들거나 또는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에 마음을 두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생각 이전의 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지 사 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051)632-0064 / 011-847-1211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 016-629-1508
대 구 지 사	053)768-8008 / 016-813-8008	전 북 지 사	063)910-8977 / 011-9642-7733
충 청 지 사	043)732-5560 / 010-9422-8453	영 주 지 국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 011-870-0021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 011-9312-2228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코 한방 (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50M 죽전네거리 연지카바레 어촌마을횟집 구병원 성서IC 두류네거리
☎ 053)552-8800

수행자가 자신 찾아 정진하듯 물도 근원 찾아 흘러



혜암은 또 다시 선지식을 찾아 나섰다. 범어사에서 하안거를 난 뒤 지체 없이 통도사 극락암으로 갔다. 극락암에는 경봉 조실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당시 경봉은 산철이 되면 서울 선학원을 오가며 대중들에게 보조 국사의 〈수심결〉이나 〈금강경〉 등을 법문하며 통도사 제일의 선지식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혜암은 극락암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경봉의 시를 읽었다. 하안거 해제 날을 맞이하여 안거를 무사히 마친 대중들에게 부치는 시였다. 시를 음미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바를 점검해 보라는 이른바 게송이었다.

시를 읽는 동안 가랑비가 내렸다. 우산이 없던 혜암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통도사 입구인 신평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혜암은 영축산에 짙은 비구름이 낀 것을 보고는 잰걸음으로 극락암에 이르렀던 것이다.

총림문은 비스듬히 열렸는데
콸콸 물소리 근원 찾아 흐르네
원컨대 중생과 고락을 같이 하리
마음이 공하니 모든 법 말할 게 없네
바람이 화창하니 구름그림자 뜰에 깃들고
가을 달빛은 옛집에 가득한데
우습다, 석 달 동안 무슨 일 으뜸인가
목마르면 차 마시고 곤하면 잠자며 묵묵한 것일세.

가랑비가 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경봉의 시는 혜암의 가슴을 젖게 했다. 특히 마지막 행인 '목마르면 차 마시고 곤하면 잠자며'라는 구절은 무심하면 도와 계합한다는 무심합도(無心合道)라는 선어를 연상케 했다.

혜암은 경봉을 친견하기 위해 원주스님을 찾았다. 그러나 해제 뒤끝인 탓에 선방은 텅 비어 있었고, 대중들은 보이지 않았다. 혜암은 할 수 없이 공양간으로 들어가 공양주보살에게 물었다.

"보살님, 경봉 큰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시님들 모두 감나무 심을라꼬 뒷밭에 갔십니더."

보살의 말대로 경봉은 뒷밭에서 스님 두어 명을 데리고 어린 감나무를 옮겨 심고 있었다. 시자인 듯한 젊은 스님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큰스님, 지금 감나무를 심어 언제 감을 따시겠습니까."

경봉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헛수고가 아니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러나 경봉은 시자의 말을 흘려들으며 말했다.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큰스님께서 이 감나무의 감을 따 잡수시고 싶어 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이놈아, 내가 어릴 때부터 따먹은 감나무는 옛날 사람들이 심은 것이다. 내가 심은 감나무가 아니란 말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내가 지금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뒷사람들이 나처럼 감을 따먹을 것이 아니겠느냐."

혜암은 가슴을 뭉클하게 얘기하는 50대 중반의 경봉 앞으로 가 합장을 했다. 그런 다음 혜암도 삽을 들고 이식하지 못한 감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 가랑비에 젖은 흙은 부드러웠다. 흙속에서 굼벵이가 꼬무락거렸다. 농장에서 가져온 어린 감나무들도 가랑비에 젖어 싱싱했다.

일은 한 식경쯤 지나서 끝났다. 혜암은 손발을 씻고 경봉이 거처하는 삼소굴로 들어가 삼배를 올렸다. 해제 철이었으므로 스님들이 경봉을 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삼소굴로 찾아왔다.

혜암은 아무 말 없이 삼소굴에 앉아 경봉과 객승 사이에 오가는 선문답의 매력에 빠졌다. 선문답은 가끔 전광석화처럼 불꽃이 튀었다. 한 수좌가 경봉에게 삼배를 올리고 안부를 묻더니 다짜고짜 대들었다.

"조실스님, 어떤 것이 적멸이며 그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수좌가 있는 곳에 문은 몇 개이며 그 열쇠는 어디에 두었는가. 자기가 있는 집이니 모를 리가 없을 테지. 적멸은 바로 그대이며 열쇠는 바로 그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스님이 묻기도 했다.

"큰스님, 무엇이 진리입니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부산에서 왔십니더."

"멀리서 왔구나. 여기까지 몇 걸음에 왔는가."

어린 스님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고 삼소굴의 분위기가 딱딱하고 엄숙한 것만은 아니었다.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 한 수좌가 짓궂은 질문을 했다.

"큰스님, 여자를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하하. 아직도 수좌는 남녀 구별이 있구나. 욕망과 애정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날마다 간음하고 살지. 나는 날마다 여자와 잠을 잔대도 애욕을 일으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

경봉이 먼저 질문할 때도 많았다.

"여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찌 왔는가."

"큰스님께서는 극락에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길이 없는데 어찌 극락으로 가겠는가."

"부처가 누구입니까."

"묻는 수좌야말로 신여래(新如來)가 아닌가."

수좌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합장했다.

"큰스님, 빈손으로 와서 미안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내려놓아도 좋을 것이야."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하하하. 그럼 계속 들고 있게나."

경봉이 파안대소를 하자 삼소굴에 모인 좌중의 스님들도 모두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혜암은 삼소굴을 나오려 할 때쯤 소름이 오싹 돋았다. 경봉이 한 구참 수좌에게 묻고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냈는가."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노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좌중의 스님들이 긴장했다. 수좌가 자신도 한 소식 했으니 인정해달라는 투로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디 손바닥을 내놓아 보거라."

수좌가 손바닥을 내놓자 경봉이 자신의 손바닥을 치며 말했다.

"방금 소리 난 그놈을 잡아오라."

수좌가 대답을 못하자 경봉이 소리쳤다.

"밥도둑놈아!"

"부처가 무엇입니까."

경봉은 대답 대신에 옆에 있던 주장자를 들고는 수좌의 머리통을 쳤다. 그러자 수좌가 혼비백산하여 삼소굴 밖으로 도망쳤다. 혜암은 공연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슬그머니 일어섰다.


그림 · 최문정

"큰스님, 가겠습니다."

"어디로."

"해인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으니 천성산 내원암으로 가봐. 거기 가면 빈 암자가 있으니 비구니 주지스님에게 내 말을 하고 산철 동안 공부하게나."

"내원암은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물어서 가봐."

혜암은 삼배를 하고 물러났다. 후에 안 일이지만 경봉은 내원암 선방의 조실까지 맡고 있었다. 극락암에서 주로 살되 결제나 해제 무렵이 되면 내원암으로 가 법문을 해주었으므로 그곳의 사정을 환히 알고 있었다.

다행히 가랑비는 그쳐 있었다. 영축산 너머의 하늘이 파랗게 조금 뚫려 있었다. 혜암은 서둘러 걸었다. 경봉이 빈 암자를 소개해주니 다소 흥분도 되었다. 동안거 방부를 들이는 가을까지는 암자에서 혼자 정진하리라고 결심했다.

> "어떤 것이 적멸이며 그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 적멸은 바로 그대이며 열쇠는 바로 그대가 가졌네"

혜암은 신평을 거쳐 양산 쪽으로 난 신작로를 따라 내려갔다. 멀리 비구름에 잠겨 있는 천성산 봉우리가 보였다. 방금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한여름이라 금세 땀이 났다. 혜암은 땀을 닦으며 천성산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다.

오후 늦게 내원암에 도착했지만 절에서 자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내원암은 비구니스님들이 수행하는 도량이었다. 혜암은 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경봉이 천거한 암자로 가고 싶었다. 극락암에서 경봉 조실스님을 뵙고 왔다고 말하자, 주지가 흔쾌하게 허락했다.

"스님, 공양은 절로 내려와 하셔도 됩니다."

암자는 내원암 맞은편 산등성이 너머에 있었다. 계곡물은 상쾌하게 소리치며 흘렀다. 계곡물을 보자, 극락암에서 보았던 경봉의 선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콸콸 물소리 근원을 찾아 흐르네.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찾아 정진하듯 계곡물도 근원을 얻으려고 소리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불가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法)이란 글자는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이었다. 암자 부엌에는 양식과 반찬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암자가 비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혜암은 당장 일과표를 짰다. 퇴설당에서 정진한 것과 똑같이 하루를 보내려고 했다. 비록 내원암 산내암자지만 혜암은 퇴설당이라 여기고 정진을 시작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니 부엌의 양식이면 적어도 산철은 보낼 수 있었다.

밤이 되자 거센 바람이 불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무들이 뽑힐 듯 휘청거렸다. 태풍이 곧 다가올 징조였다. 이틀 후에는 내원암을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계곡물이 불어 넘쳐흘렀다. 그러나 혜암은 내원암을 내려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결코 암자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태풍이 지나가자, 약초꾼이나 나무꾼마저 얼씬거리지 않았다. 암자 앞으로 난 산길은 천성산 화엄벌을 넘어 척판암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이다. 비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내렸다. 또 다른 태풍이 지나갈 조짐으로 드문 일이었다. 혜암은 암자에 섬처럼 고립됐다. 이따금 산짐승들이 나타날 때면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비를 맞아 온 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여인은 내원암에 기도하러 온 여인 같기도 했다.

"스님, 비가 와 더 못 가겠습니다. 하룻밤 머물게 해주십시오."

혜암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곳은 비구 홀로 수행하는 처소이니 여인네가 머물 곳이 못 되오."

그러나 여인은 혜암을 은근히 유혹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에 젖은 옷이 흘러내리자 맨살이 드러났다. 혜암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네가 지금 옷을 홀라당 벗고서 내 자지를 만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끄덕하지 않을 것이다. 어서 썩 물러가라."

혜암의 시퍼런 기상에 놀란 여인이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산자락 아래로 도망쳐버렸다. 그날 이후 혜암은 색마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얻었고, 여름 산철 동안 무사히 정진한 뒤 가을에 해인사로 돌아갔다.

훗날 혜암은 재가신도들에게 내원암 암자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은 수마와 색마를 완전하게 물리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3시 ~ 29일(음 6.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워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6 밥은 깨달음

비빔밥 비비며 '원효'를 그리다

음력 3월29일은 신라의 고승, 원효 대사가 니르바나에 이른 열반일이란다. 그것을 기념한 원효 대사의 대제(大祭)가 분황사에서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곳을 향했다. 형상강을 타고 흐르는 상쾌한 기운을 맞으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잠시 설렘을 느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땅에, 해골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몸소 실천하며 살다간 대선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새삼 뭉클하게 했다. 당시 귀족의 신분이던 스님이 왕실 불교를 서민들과 더불어 살며 민중불교로 일구어낸 열정의 삶은 앎과 행의 일치를 그대로 보여준 성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무나물, 콩나물, 미나리, 고사리, 미역줄기를 넣고 김가루를 뿌려 콩나물국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모전석탑이 세월을 초월한 웅장한 멋을 자랑하는 가운데 분황사에는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다. 법당 옆으로는 원효 대사의 흑백그림을 모셔놓은 재단이 차려졌고,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행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제사 후 음악회가 열릴 무대 위에서는 관계자들의 사전점검이 분주하고, 법당 맞은 편 나무 아래에서는 합창단들의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중에 내 눈에 꽂힌 곳은 뜰 한 귀퉁이에 설치된 아궁이었다. 아궁이에 걸린 검은 무쇠 솥이 위풍당당한 자태로 부지런히 김을 뿜어내며 무언가를 끓여내고 있었다.

"보살님, 이 속에서 뭐가 끓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국 아이가. 이따 점심공양에 비빔밥 먹을 때 뜨끈하게 먹게꼬롬 끓이는기다."

법복바지 위로 검정허리띠를 질끈 동여맨 노보살님 한분이 옷매무세만큼이나 다부진 설명을 해준다. 아궁이 옆 수돗가에서 물을 받고 있던 다른 노보살님 한분은 인자한 웃음으로 "요새 그런 솥은 구경하기 힘들재?"라며 화답한다. 소나무의 화력과 무쇠 솥의 기운이 맞물려 끓여낸 콩나물국은 어떤 맛일는지 궁금해 아궁이 곁을 기웃거리는 서울 촌객이 노보살님들은 재미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콩나물을 넣고 물을 조금 부어가 짐을 푹 내면 콩나물이 익는다아이가. 그러면 국이 될 만치 물을 더 부어가, 짐 나면 고래 맛소금 좀 넣고 간 맞춘기다. 점심공양시간에 와서 꼭 먹고 가라."

"집에서 끓일 때는 거기에 파 좀 동동 썰어 넣고, 매콤하게 먹으려면 땡초도 조금만 총총 썰어 넣으면 콩나물이 시원하면서 맛있는기라."

이래저래한 시시콜콜한 궁금증에도 두 보살님은 흥에 겨워 바통을 이어가며 답변을 해준다. 아궁이 근처의 다른 한편에서는 비빔밥 그릇이 차곡차곡 쟁여져 손님을 맞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곡예를 하듯 쌓여진 그릇들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밥만 담으면 되도록 각양의 나물들이 옹기종기 담겨져 있다. 이번에는 앞치마를 두른 젊은 보살님 한분이 다가와 무엇이 그리 궁금하냐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넨다.

"무나물하고 콩나물, 미나리, 고사리, 미역줄기 좀 넣고 김가루좀 넣은거라예. 어제 아침부터 신도들이 모여 나물 다듬어가 데쳐가 볶아가 그래 준비한기라예."

경상도 아낙들의 리드미컬하고 구성진 사투리가 노랫가락처럼 흘러들어 마음까지 순화된 느낌이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한 시간 가량의 법요식이 끝나고 드디어 점심시간. 공양간을 향한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꾸물거리던 하늘에서도 드디어 빗방울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바람 많은 경주의 봄날은 날씨변화가 심해 으슬으슬한 한기까지 느껴졌다. 무쇠 솥의 걸작 비빔밥 한 그릇과 콩나물국 한 사발을 챙겨들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궁이 앞. 소나무가 활활 타오르던 아궁이의 불꽃은 어느덧 재가 되어 따끈한 화덕이 되어있다. 누군가가 의자대용으로 끌어다놓은 통나무 위에 종이까지 깔려져 있으니 이 아니 반가울쏘냐. 대번에 엉덩이를 걸쳐대고 콩나물국의 담백한 국물에 목을 축인 후 신나게 비빔밥을 비비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에서는 가뭄의 단비인 꽃비가 흩날리고, 아궁이의 온기에 몸과 마음을 따끈하게 데워지고, 무쇠 솥과 아낙들의 정성어린 밥 한 그릇까지 공양을 받았으니,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없어 극락과 지옥도 다름이 없다던 원효 대사의 깨달음이 바로 그 자리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2 인정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인정 받고 인정 하면 스스로 업그레이드 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것이 좌절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극도로 속상해하거나 낙담하게 된다. 반대로 자기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기애의 충족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인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에 행복을 느낀다.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게 쏠리는 '인정'이라는 느낌을 내가 이렇게 원하듯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상대, 즉 다른 이들도 이 '인정'을 받게 되면 매우 행복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내 가치를 높이는 '인정'이라는 선물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도 자기애를 채우는 인정과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원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 상대를 인정하는 칭찬과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과 행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랑도 받아 본 사람이 할 줄 알고, 음식도 먹어 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인정도 많이 받아 보고 존중 받아 보고 칭찬을 들어 그 기쁨과 느낌을 충분히 아는 사람만이 상대에게도 아낌없이 여유롭게 가치를 높여주는 '인정'이라는 선물을 할 줄 안다.

또한 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사람들은 보통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내 자신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이다. 자신 없고 못난 사고를 가진 비겁한 사람들이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상대를 낮추고 깎아 내리며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수준 없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과 같이 창피한 일이며 가치 없는 짓이다.

거지같은 남편이라고 핀잔을 주면 결국 자신은 거지랑 사는 부인일 수밖에 없으며, 무능력한 상사라고 재수 없어 한다면 그 무능력한 상사를 모시고 있는 자신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더 무능력한 그 직원이 아니겠는가? "넌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난 벌써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못났으면 아직도 그 모양인 신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랑을 떠벌려 놓겠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적인 기술

"역시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당신 밖에 없어요." "내겐 당신이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내 눈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당신의 기분은 어떨 것 같은가? 그 기분과 그 느낌을 당신이 말함으로 상대에게 선사해주어라.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일도 무지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즐거운 행복감을 선사해준다는 것도 아주 뿌듯한 일이 된다. 동시에 나의 격이 한층 높아지고 함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최고인 사람 옆에 있는 나 역시 최고인 사람일 것이며,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의 친구인 나 역시 그러할 것이며,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인 나도 물론 귀하고 어여쁜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다.

이렇게 상대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조직과 관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올리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은 나를 가장 업그레이드 시켜 주며 나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이다.

(02)576 -7575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6

탄수화물의 적절한 공급 뇌 건강하게 해

태삼(太蔘) 천년초에 관한 글을 쓸 때 현대인들의 건강문제를 논하면서 편의상 삼쾌(三快)를 논했고 연재를 계속 봐오신 독자라면 쾌식(快食)과 쾌변(快便)에 이어 쾌면(快眠) 즉, 잘 자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연재에서 절대 다수가 잘 먹지도 잘 싸지도 못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관심 있게 연재를 읽어왔다면 사실 잘 먹고, 싸는 것이 결국 하나의 연결된 문제이며 이제 잘 자는 것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돼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는 주식으로 곡물의 씨앗을 먹고 산다. 한국인은 벼의 씨앗인 쌀을, 미주 유럽은 밀, 아프리카는 쌀 밀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주식으로 하는 곡물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다당체에서 단당질로 분해돼 피를 통해 운반, 혈관을 타고 온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신체에서 뇌가 탄수화물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뇌는 심장을 제외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의 공급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특히 다른 영양분을 사용하지 않고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단당만을 가지고 활동을 유지한다. 그래서 짧은 기간 과량의 설탕 또는 초콜릿을 섭취하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론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섬유질이 포함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빵과 크림, 치즈케이크와 같이 소화가 필요 없는 당분을 섭취하면 식후 급작스런 혈당의 증가로 과다 영양분이 공급된다. 이후 섬유질의 부재는 급격한 당분 공급을 가져오고 여기에 아침까지 거르게 되면 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물론 처음의 이런 경우는 보통 몸이 축적해 놓은 영양분과 비상 성분들로 대체가된다. 하지만 비상대체도 비상이 너무 자주 걸리면 결국 몸에는 탄수화물이 과다 공급과 결핍이 번갈아 가면서 작용되고 습관화 되면 뇌의 경우 기능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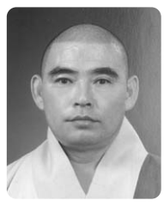
소뇌는 우리의 신체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신경체계의 최고 조절기관이자 명령기관인데 영양공급의 불균형으로 손상된 뇌는 혈압, 맥박, 호르몬 대사, 신경전달, 체온 등을 비정상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옛 조상이 천년초를 삼(蔘)의 으뜸인 태삼(太蔘)으로 명명한 이유는 산삼과 인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항상성(恒常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사와 끼니의 거름으로 비정상에 이른 분들이 천년초를 먹게 되면 겪는 현상들을 실제 드시는 분들은 신비롭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항상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02)455-0417

최면사 · 퇴마사 1:1 실전교육



빙의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교육비용 : 200만원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최면사 · 퇴마사 현오 합장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이야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불가의 순수원향

그간 선향을 제조하는 연구가 거듭되면서 접착제가 내뿜는 독한 향을 가리기 위해 조개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이나 재(灰)를 섞어서 향을 제조하는 공법이 일본 등에서 개발되면서 이 방법이 향을 순하게 하고 향의 연기도 많이 줄인다고 하여 지금 세계는 앞 다투어 재를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기는 재를 사용한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연기는 눈에 보이는 흰 연기와 인체에 유해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연기로 구분되는데 재를 첨가하면 유해물질은 검은 연기로 화해서 연기의 양이 적어 보일 뿐이지 근본적인 연기의 질량은 같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흰 연기보다는 검은 연기가 유해한 성분이 더 심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호흡에 무리가 오는 등의 기술적인 벽은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향을 피우면서 환기를 하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침향은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 또한 뛰어난 물질이긴 하지만 수지를 빼고 남은 가루에 인공접착제를 섞어 만들어진 선향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코는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일수가 없는 것이 향의 본질이다.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인공 접착제를 넣은 향을 피우게 되면 편안하던 호흡이 차츰 조심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슥거리거나 머리가 무거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제조된 침향선향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대안으로서 인공 재배된 저렴한 침향을 구해서 가루로 내어서 사용하시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고품질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경제적일수도 있기에 이 방법을 권하는 것이다.

말이 난 김에 몇 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향 제조방법은 향 재료에 일체의 화학적인 접착제나 재 등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원향으로 우리나라 불가에서 비전으로 전해 내려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향 제조방법이다.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화학접착방식의 외래향을 마구 수입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그 기간은 고작 몇 십 년에 불과하지만 과연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일반인들에게 설문한 결과 절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서 불상 다음으로 꼽은 것이 독한 향냄새라고 답을 했다한다.

그 독한 향을 견디다 못해 공양의 가장 으뜸이라는 향공양은 오늘날 사찰에서조차 기피되고 있으며 특히 톨루엔 성분의 독한 향냄새는 일반인들에게 절을 기피하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된 것이 부끄럽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다행히 근자에는 원래 우리 불가에 전해온 향제조법이 인체에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향이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계는 점차 그 점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의 순수원향을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때인 만큼 우리는 예전에 우리조상들이 올렸던 매향의식의 참뜻을 되살려 전래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향공양을 다시 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문의전화 02)3663-6777

‘난해한 조사선’ 사대부의 유학 기반한 이해로 ‘융성’

<34> 송대(宋代) 사대부의 배불(排佛)과 귀불(歸佛)(2)

송초(宋初) 유가에 경도된 사대부들의 ‘배불운동’은 설숭(契嵩) 스님의 ‘유불융합’과 ‘삼교일치’의 사상과 다양한 호법활동으로 증단됐다. 이후, 설숭 스님의 ‘삼교일치’ 사상은 승가와 사대부 양쪽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양송의 불교는 당대(唐代) 전성기를 보였던 제종파들이 점차로 ‘선종(禪宗)’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남종선(南宗禪)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이 대표적인 불교라고 하겠다. 사실상 설숭 스님과 동시대에 같은 운문종 스님인 대각회련(大覺懷璉) 또한 ‘삼교일치’를 제창했다. 불인요원(佛印了元) 선사 역시 출가하기 전에 “오경(五經)의 대의(大義)를 통달”했으며, “유가의 서적 가운데 읽지 않은 것이 없었고”, 특히 왕안석(王安石)과 교류하면서 “도가의 관(冠)을 쓰고, 유가의 생활을 하며[履], 불가의 가사(袈裟)를 입고서, 삼가(三家)를 화회(和會)해 일가(一家)를 이뤘다. 도솔타천(兜率陀天)의 길을 잊고서, 쌍림(雙林)에 오로지 앉아 용화(龍華)를 기다리노라”라는 시를 남겼다(<운와기담(雲臥紀談)> 권하). 또한 임제종(臨濟宗)의 원오극근(圓悟克勤)과 제자인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 역시 ‘삼교일치’를 제창했다. 대혜 선사는 “삼교의 성인들이 설하는 법은 권선계악(勸善戒惡)이 아님이 없으며,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며, “삼교의 성인들은 오직 가르침을 세운 것만 다를 뿐이고, 그 도(道)는 함께 돌아와 일치한다. 이는 만고(萬古)에 바뀔 수 없는 뜻이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4)”라고 논했다.

이렇게 송대에서는 승가에서 적극적으로 ‘삼교일치’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당대(唐代)로부터 출현한 것이지만, 송대에서 승가의 ‘삼교일치’의 주장은 당시의 정치상황이 고려된 감이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종교에서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립’이 불가능하다. ‘진리’라는 것은 ‘궁극적인 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서로 다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만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국불교가 전래 초기로부터 불·유·도의 삼교융합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불교만이 지닌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불교에서 제창된 ‘삼교융합’ ‘삼교일치’는 불교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 유·도 양가의 사상을 포섭하자는 의도이지, 삼교가 ‘진리’를 ‘공유’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이사겸(李士謙) 거사의 유명한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별[五星]이다”라는 말과 같이 ‘삼교일치’의 주장에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전제돼 있었다. 그러나 송대의 ‘삼교일치’는 그러한 최후의 벽까지도 넘어선 ‘양보(?)’의 모습이 느껴진다. 이는 송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불교가 끊임없이 ‘우월함’만을 강조했다면, 황권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제군주체제에서 아마도 그 생존조차도 보장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더욱이 당시에 불교의 주류는 바로 ‘외연(外延)’이 극대화된 ‘조사선(祖師禪)’이었기에 이러한 ‘양보’가 가능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보’를 전제로 한 ‘삼교일치’의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철저하게 유학을 바탕으로 한 사대부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송초에 보였던 ‘배불운동’이 무엇 때문에 중지됐는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다. 또한 이러한 점 때문에 ‘이학(理學)’에 불교의 이론들이 깊게 들어가 이른바 ‘표유내석(表儒內釋)’, 즉 껍데기는 유학이지만 안의 내용은 불교라는 말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양송 불교 종파들 ‘선종’으로 통합되는 양상 보여
唐代에 비해 승가가 먼저 ‘삼교일치’ 주장해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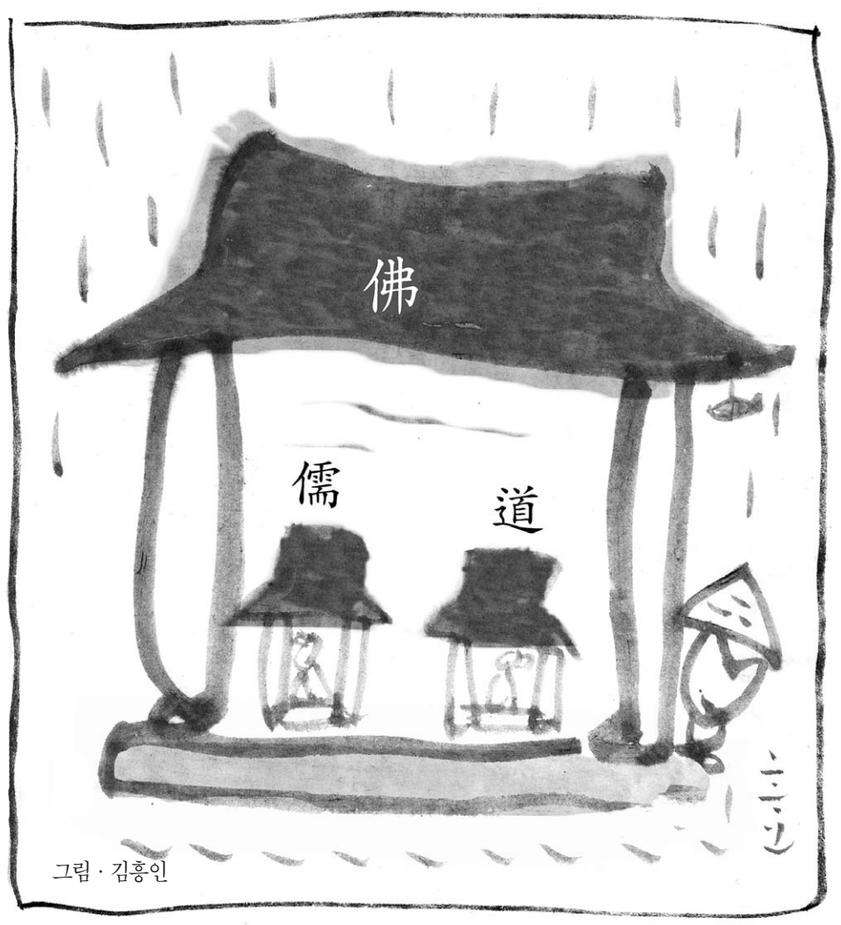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송대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사불교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내재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대부 계층은 철저하게 과거를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모두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능력과 성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난해한 조사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때문에 거사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다.

남송의 도융(道融) 선사가 편집한 <총림성사(叢林盛事)>(전2권)에는 당시 고승들의 일화와 함께 ‘참선(參禪)’과 관련된 수많은 사대부 거사들의 인명이 보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거사를 소개한다.

부필(富弼; 1004~1083) 거사는 하남(河南) 낙양(洛陽)사람으로 인종(仁宗) 시기에 추밀부사(樞密副使), 영종(永宗) 시기에는 배추밀사(拜樞密使) 등의 고관을 역임했고, 정국공(鄭國公)으로 봉해졌으며, 송대에 뛰어난 재상으로 유명하다. 본래 거사는 ‘배불운동’을 제창하다가 설숭 스님의 글을 읽고서 불교에 호의를 가졌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21에 게재된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청헌공(淸獻公) 조변(趙抃)이 보낸 “부귀가 이미 극에 이르고, 도덕이 매우 높은데, 어찌 여래의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에 뜻을 두지 못하는가?”라는 편지를 받고서 참선에 뜻을 두고서 주야로 정진했다. 거사가 진호주(鎭豪州)를 역임하던 시기에 영주(潁州) 화엄원(華嚴院) 수옹(修顒) 선사의 명성을 듣고서 선사를 참알했다. 마침 선사는 법좌에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던 차에 거사가 들어오자 한 번 바라봄이 마치 코끼리 왕[象王]이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이 보였고, 그에 거사의 마음이 움직여 바로 제자의 예를 올렸다. 선사는 거사를 보고 “상공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부필은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자 거사의 등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바로 대오했다고 한다. 후에 거사는 수옹 선사의 스승인 원조종본(圓照宗本) 선사에게 “한번 수옹 선사를 뵙고서 깨달아 깊이 들어가 스승의 마음을 전해 얻은 인연이 되었네. 동남쪽의 속이는 말에 강산이 멀어졌지만, 눈앞에 신령스러운 빛과 묘음(妙音)이 드러나네”라는 게송을 보냈다(<오등회원(五燈會元)> 권16). 이후 거사는 스스로 ‘남악 선사 문하의 방온 거사, 백장 선사 문하의 배휴 거사’를 표방하면서 운문선풍의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속전등록> 권19에 ‘수옹선사법사(修顒禪師法嗣)’로서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다.

양억(楊億; 子는 大年, 974~1020) 거사는 건주(建州; 지금의 福建省 建甌)사람이다. 진종(眞宗)시기에 한림(翰林)의 학사(學士)가 됐고, 천희(天禧)2년(1018)에 배공부시랑(拜工部侍郎)을 역임했다. <송사(宋史)> 권305에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거사 역시 처음에는 불교에 비판적이었다가 이유(李維) 거사의 권유로 불교를 접하게 됐고, 후에는 “불전(佛典)과 선관(禪觀)에 깊이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 대중상부(大中祥符) 7년(1014), 거사는 지여주(知汝州)를 역임하던 시기에 광혜원련(廣慧元璉) 선사를 참알했다. 원련 선사는 수산성념(首山省念) 선사의 유명한 제자로서 임제선법을 계승했는데, 거사는 원련 선사를 참알하고서 언하에 크게 깨닫고, “팔각의 맷돌 판은 허공 속을 달리니, 금빛 털 사자를 개라 부른다. 몸을 뒤집어 북두성에 감추려거든, 마땅히 남극성 뒤에다 합장하게나”라는 게송을 지었다. 이후 거사는 선림에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됐다. 각범혜홍(覺範慧洪) 선사는 <임간록(林間錄)>에서 “양대년 사대부는 그 변혜(辯慧)가 뛰어나 불조(佛祖)가 전하지 못한 종지(宗旨)를 능히 통달한다. 지금 산림의 납자들이 오히려 머리 숙여 그를 따르며 선도(禪道)와 불법(佛法)을 구하니, 우습도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양억 거사는 특히 문장에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이유, 왕서(王曙) 거사들과 함께 도원(道原) 스님이 찬술한 <경덕전등록>의 문장을 윤색했고, <서문>을 찬술해 총림(叢林)과 사대부 사이에 널리 유통시켰다.

이준욱(李遵勗; 字는 公武, 988~1038) 거사는 노주(潞州) 상당(上黨; 현 山西省 長治)사람이다. 벼슬은 좌룡무장군(左龍武將軍), 부마도위(駙馬都尉)에 이르렀다. 본래 양억 거사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거사는 먼저 곡은온총(谷隱蘊聰) 선사를 참알했는데, 온총 선사 역시 수산성념 선사의 제자이다. 거사는 온총 선사에게 ‘출가사(出家事)’를 물었고, 선사는 ‘최월공문경산공안(崔越公問徑山公案)’으로 답했다. 이 공안은 바로 당대(唐代) 재상 최환(崔渙) 거사가 경산 선사에게 “제자가 출가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출가는 대장부의 일인데, 어찌 장상(將相)이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답이다. 이외에 다양한 문답을 통해 이준욱 거사는 대오했으며,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된 놈이라야 하리니, 착수하는 마음에서 결판내야 하리라. 곧바로 무상보리(無上菩提)로 나아가려거든, 일체 시비에 상관하지 말라”는 게송을 남겼다(<오등회원> 권12). 이후 거사는 온총 선사를 몇 년간 참문해 선법을 심화시켰다. 천성(天聖) 4년, 거사는 자신의 저택에 법좌를 설치해 온총 선사를 청해 법회를 열었으며, 항상 여러 선사들과 담론을 즐겼다. 거사는 또한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30권을 찬술했는데, 이는 <경덕전등록>을 바탕으로 해 선종 인물들의 기연(機緣) 등을 확충한 것이다.

송대 사대부 거사들은 대부분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선의 선리(禪理)를 섭수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승가에서 먼저 ‘삼교일치’를 제창해 그들과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에 기인했다고 평가된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불교의 독자적인 성격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교의 존속을 보장받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불교, 특히 조사선의 심성론(心性論)은 자연스럽게 유가의 ‘이학(理學)’에 흡수되어 그 사상을 풍부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송대 거사불교가 지니는 중요한 특질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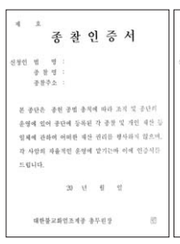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9년 5월 23일 – 5월 29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5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5월 29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쇼울,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특급정보 #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목표 알고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봉암사 선덕 법연 스님

봉암사로 가는 굽이굽이 이어진 계곡에는 층층나무가 백자색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하면, 꽃 져버린 벚나무는 연둣빛 나뭇잎을 꽃인양 진중하게 달고 있다. 연둣빛 신록이 꽃만큼이나 곱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봉암사 일주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동방제일수행도량'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에 젖는다. 한때는 봉암사에 삼천여 대중이 머물렀고, 동방장과 서방장으로 나누어 정진을 할 정도였다.

산철이기도 하지만, 도량 전체가 묵언 정진에 들어갔는지 조용하기만 하다. 그나마 장대에 걸린 빨래들이 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아 한결 마음이 놓인다. 금색전을 지나서 태고선원 앞에 섰다. 진공문(眞空門)이라는 현판이 달린 일주문에는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라고 쓰여진 주련이 걸려있다.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덧없는 알음알이는 버리고 한 마음 돌이켜 자기 존재의 실상을 밝혀라'는 경책이다. 한 스님이 진공문을 들어서기에 얼른 쫓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노란색 민들레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태고선원에서 이십분 정도 올라가면 백련암이 나온다기에 부지런히 걸었다. 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는데도 '백련암' 팻말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으니 물어볼 데도 없다. 무조건 앞을 향해 걸었는데, 양 갈래로 나뉘어진 길이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막막하다. 그야말로 로보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 시(詩)가 절로 떠오른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한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서운한 마음에 한참 서서/ 덤불 숲속으로 접어든 한 길을/ 끝간 데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쪽 길을 택했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사람의 발길이 오고간 듯한 길을 택했다. 산모롱이 돌아 한참을 올라갔지만 바람소리와 목탁새의 나무 쪼는 소리만이 귓가를 스친다. 갔던 길을 되짚어 내려와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해 걸었다. 개울물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서 또 한참을 걸었다. 산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와락 무서움이 엄습했다. '길은 길로 이어지기에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던가. 대웅전으로 돌아가서 길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다.

백련암 암주 법연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잎이 무성한 산죽이 백련암으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은 가로막고 서 있다. 단청도 없는 퇴락한 백련암에는 이제야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벚꽃과 돌배나무의 하얀 꽃은 음전하게 도량을 단장하고 있는데 반해 분홍빛 복사꽃은 도회의 은성한 불빛마냥 화려하게 산중 도량을 외호하고 있다.

스님의 거처에 들어서자 시계 바늘이 한 오십년은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아미타불이 모셔진 그 공간은 법당이자 스님의 수행처이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날살과 씨살을 대충 얽어매어 만든 창호문, 짚으로 만든 씨앗통, 벽에 걸린 낡은 삿갓 등등. 낡아서 소박해서 단순해서 작아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있다. 법연 스님께 삼배를 올리려는데 손사래를 친다. 봉암사 입구에서 한 노장스님이 꼬챙이로 하수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법연 스님이라 깜짝 놀랐다. 아이구 송구스러워라, 사진까지 찰깍 하고 찍었는데….

"옛날에는 신발을 아예 안에 들여놓고 살았어. 신도들이 찾아오면 차라도 같이 마셔야 하고, 그런 번잡한 것이 싫어서 될 수 있으면 반연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아예 신발을 안으로 들여다 놓고 공부하셨다는 말씀에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백련암 찾는다고 좀 헤매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최소한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동방으로 가야하는데 서방으로 가고 있으면서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나 가야지. 오늘 그것 하나만 알고 가도 봉암사에 온 보람이 있어. 그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거야."

법연 스님을 찾아뵙고 뜻하지 않게 좌우명을 받았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다. 스님은 점심공양 시간도 지났으니 배고프겠다면서 곶감을 내주었다. '곶감이 달고 맛있다' 했더니 스님은 웃으시면서 '야단맞은 곶감'이라 한다.

"예년에 비해 감나무에 감이 영 안 달린 것 같아서 과실수가 열매도 못 맺는다고 막 야단을 쳤어. 그렇게 욕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봤더니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라. 내가 잘못 본 거지. 감나무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내가 잘못 봐가지고 야단을 쳤으니 이젠 마음을 풀게'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 감나무도 사과를 받아들였겠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야단을 친 것도, 나무에게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한 것도 '감나무에게 불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잣나무도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조주 스님은 "있다"라고 답하지 않았던가.

법연 스님은 유복한 집안의 장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살에 동진출가 했다. 출가동기를 여쭈었더니 "우연히 절에 놀러갔는데, 어린 마음에 절이 참으로 좋아 보이데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절로 가버렸지. 출가랄 것도 없어"라고 알려져 있는 터이다. 그런데도 당신의 공부는 입 밖에 내지 않으시려 한다. 스님께서 따라주신 차를 말없이 마시다가 무슨 화두를 참구하시는지 궁금하여 또 다시 여쭈었다.

"천지가 화두라!"

천지(天地)에 화두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에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제비꽃도, 조팝나무도, 바위도, 하늘의 구름도, 여름날의 태풍도, 한 겨울의 눈보라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법연 스님에게는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 법문이 팔만사천 가지인데, 그것은 수행방법이 팔만사천 가지인 것이라. 사람들은 화두가 아니면 성불하지 못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 그 대신 바로 딱 깨달으면 화두참선이 가장 빠르지. 화두참선이 들어오기 전 신라에도 도인(道人)이 많았음을 생각할 때 간화선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해요. <육조단경>에 보면 최상근기라야 참선을 한다고 했어. 누구나 생각만 내면 최상근기가 되는 것이지. 보통 자신은 하근기라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상근기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녀. 자신이 상근기라 생각하면 그 순간 상근기인 것이고, 나는 하열(下劣)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근기인 것이지. 내가 최상근기라 생각하고 화두 들면 그만큼 공부도 잘되는 것이여. 공부에는 승속이 없어. 승속을 떠나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부처님처럼 대자유인이 될 수 있어."

법연 스님은 어느 수행법에 집착해 구속되는 법박(法縛)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라 했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만 모르는 길을 가면 어려운 것처럼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요. 평소에 자신이 많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요. 화두를 들던지, 염불을 하던지, 다라니를 하던지 무엇이든 일념(一念)으로 하면 됩니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설은 절집에 살면서 세속의 삶이 궁금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세속의 삶이 궁금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벌써 절집을 나가겠지"라고 하신다.

"요즈음은 행자들이 늦은 나이에 들어와서 중물을 들이기도 전에 나가버리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요. 절에는 승속을 막론하고 신심이 없으면 못사는 곳이지. 신심이 없으면 공부도 안 되고, 공부 안하면 절에 살 이유가 없지. 공부도 안하면서 절에 사는 것은 큰 빚지는 것이야. 절에 있는 것은 모두 비싼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요만한 작은 것 갖다 바치고도 큰 것을 바라니 시주물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시주로 사는 것이니 그것은 무서운 것이지. 오죽하면 옛어른들은 '견성성불 못하면 시주물 한 방울도 소화 못시킨다'고 했을까."

'여일하게 두는 것이 참선'이기에 좌선 대신 울력해도 공부 문제 없어

선지식을 찾아서 법연

법연 스님은 1943년 선산에서 출생. 아홉 살에 대둔사로 출가. 그 후 상주 남장사, 오대산 상원사, 낙산사, 화암사에서 수행정진했다. 지금은 문경 봉암사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으며, 봉암사에 머문 지 사십 년이 된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제5회 산림수계법회 및 법계품수 수여식

본종단에서 실시하는 산림수계와 법계품수 수여식에 종도및 신도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시 : 불기2553년 5월 17일(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대승사 대법당

■ 수계법회 (보살계, 사미계, 사미니계, 구족계)
■ 전계아사리 : 각암 ■ 교수아사리 : 보각
■ 갈마사아리 : 지도. 법계구분(대선,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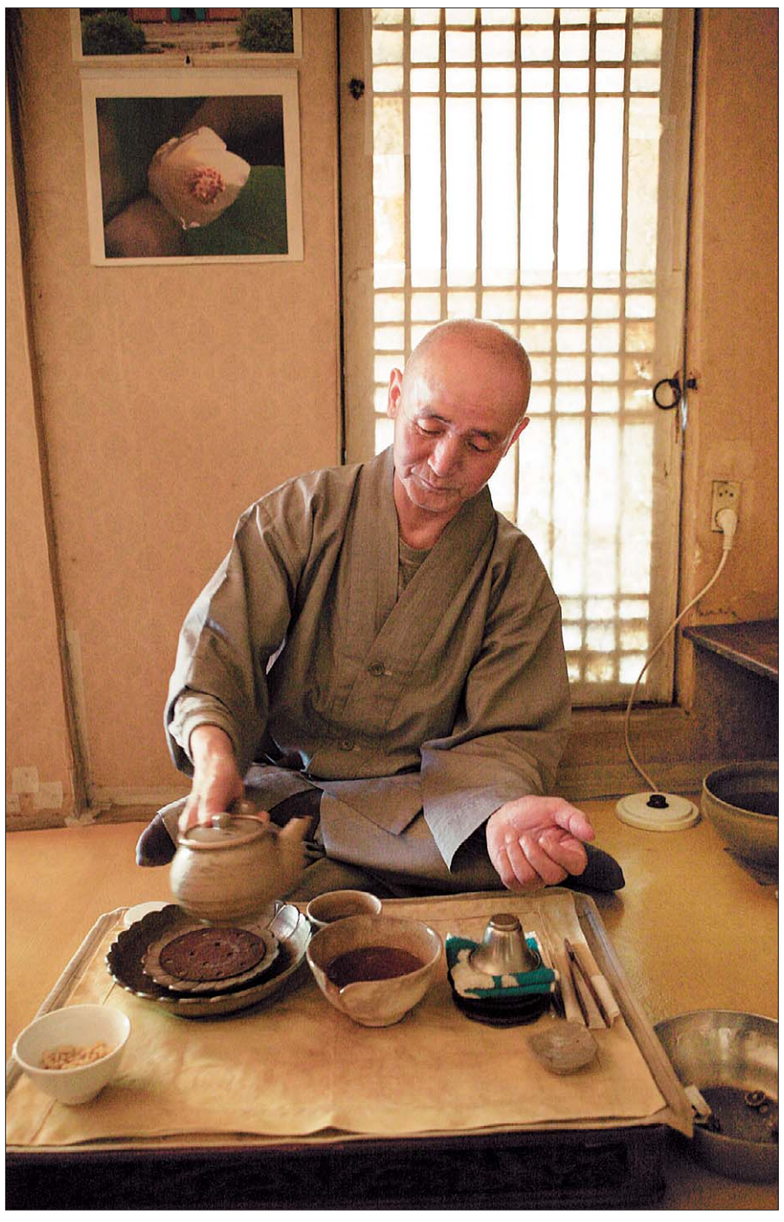
* 승려증 갱신 기간이오니 승려증 복사하셔서 사진 1매를 동봉하여 행정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행정원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대승사
문의처 : 053)325-5288. 010-2013-0082. 010-6236-5557

참신한 종도를 모집합니다

규칙만 지켜도 극락인 것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시주물에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을뿐더러, 바라는 마음이 시주물보다 백배 천배가 많기 때문에 시주물은 비싼 거란다. 법연 스님은 정지간(淨地間)이 있어도 직접 밥을 해 드시지 않고 큰절에서 대중들과 함께 공양한다. 밥을 해먹기 시작하면 다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비축해두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것에도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한 마음씀이 번거롭다고 한다.

출가하신지 두 해가 모자라는 육십 년째이다. 백련암도 선기(禪氣)에 물들어 있는데, 암주인 법연 스님의 높고도 맑은 선기에 대해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싶다. 그래서 여쭈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는지.

"색심(色心)은 생사의 근본이기에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팔지 보살 정도 올라가야 그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조사스님들께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색심이 완전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여. 단지 수행에 의해서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지."

법연 스님을 두고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며 '안과 밖이 같은 분'이라 한다. 안과 밖이 같기에 속내를 감추지도 드러내지도 않는다.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울력이 있을 때면 몸을 아끼지 않는다. 봉암사가 이만한 사격을 갖추는데 거의 사십년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법연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여일하게 두는 것이 참선"이라 생각하기에 좌선 대신 울력을 한다 해도 공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일반사람들이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맞고 틀림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여. 조사어록은 깨달은 분상에서 말했기에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조리에 맞는 말이고, 앞뒤가 맞는 말이지. 어린이에게 어른의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이, 선어록은 깨달은 사람끼리 주고받은 말이기에 일반인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지."

공안이 천칠백 가지나 되는 것은 의심하라고 해 준 말이 아니란다. 깨달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을 해주어도 듣는 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꾸 의심하다 보니 화두가 된 것이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쭈었더니 웃으시면서 "숨쉬고 사세요"라고 한다.

"요즈음 세상을 보면 내 주장보다는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남의 말에 끄달린다는 것은 내 주관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자유인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해도 상관치 않고 자신의 일만 한다면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지."

스님은 '선물'이라는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셨다.

어느 날 외도가 와서 부처님을 비방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비방을 다 듣고 있었다. 외도의 욕설이 다 끝나자 부처님께서 물었다.

"당신은 손님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주면 받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겠지요."

"나도 자네의 말을 하나도 받지 않겠네."

법연 스님은 "사람들이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해진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이 세상은 벌써 극락이 됐을 텐데, 너무 과욕을 부려서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끝에 "좋은 것이 오더라도 나쁜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곧 저녁공양시간이라면서 이젠 내려가란다. 스님은 군불이라도 때려는지 땔나무 몇 둥치를 안고 정지간으로 들어간다. 서녘 하늘은 금빛으로 빛나고 무심도인은 군불을 지피고, 봄날의 그림 같은 풍광이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3. 조계총림 방장 구산 스님



구산 스님(1909~1983 · 사진)은 효봉 스님(1888~1966)의 큰 상좌로, 별명이 '이뭣고?' 스님이다. 1956년 쌍계사에서 효봉 스님을 뵙고 나서 송광사에 돌아와 취봉 스님께 구산 스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1909년 남원 출신으로 스물일곱 살에 우연히 병을 얻어 고생하던 중, 한 거사를 만나 자성(自性)에는 병이 없는데, 어느 곳에 병이 붙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법문을 듣고 감동되어 지리산 영원사에 들어가 천수기도 10만 독을 하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29세에 출가해 30세에 송광사 삼일암에서 효봉 스님께 계를 받고,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백련암에서 한 철을 나고 청남사 수도암 정각토굴에서 정진했다. 1946년 가야총림에서 도감을 보고, 법왕대에서 한 소식을 얻고 상당법문을 하였다.

한 소리가 3천대천세계를 깨우다 삼켜버리니/ 홀로 저놈이 9시를 알리는구나/ 시계소리 부처님 말씀인데/ 편편한 금목(金木)이 부처님 몸 아니리.

이렇게 여러 번 깨달은 소식으로 서론을 대고 다음에 꽤 많은 소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천강에 달이 뜨니 파도가 그대로 달이고/ 하늘이 만물을 갈무리고 있는데 나는 하늘을 갈무리고 있네/ 일체의 이름과 모양에 원리가 구족해 있으니/ 장엄법계가 그대로 진언이로다.

스님은 1954년 정화운동에 참여해 500여 자 혈서를 써 유명하였다. 그래서 1955년에는 전남종무원장이 되고, 1957년에는 광양 백운사를 중건하고, 1962년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를 하였다. 그러니 송광사 방장이 되더라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러나 대처스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취봉 스님께서 한번 더 주지직을 맡아 양쪽을 화해시킨 뒤 은사 효봉 스님의 위촉을 받아 1969년 비로소 송광사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었다.

항상 웃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때문에 스님이 계신 방을 '미소실(微笑室)'이라 하였다. 특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여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였다. 70년대부터는 7바라밀 법문도 하여 외국어로까지 번역,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구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새로운 실천행을 제시, '7바라밀'을 요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하라 이르셨다.

월요일은 베푸는 날 보시바라밀, 화요일은 올바른 날 지계바라밀, 수요일은 참는 날 인욕바라밀, 목요일은 힘쓰는 날 정진바라밀, 금요일은 안정의 날 선정바라밀, 토요일은 슬기의 날 지혜바라밀, 일요일은 봉사의 날 만행(萬行)바라밀.

원래 불교의 가르침 속에 있던 육바라밀에 한 가지를 더하여 일요일에는 반드시 자비행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만행의 날'로 지키라는 당부였으니, 7일 단위의 현대생활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가르침이었다.

필자와는 세 번째 도미(渡美)했을 때 미국에서 만나 뵈었으며, 한국에 오니 법연화 보살님께서 구산 스님께 머리 깎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원래 법연화는 국제극장을 운영하다가 청담 스님 상좌들에게 맡겼는데 한 스님이 깡패들에게 희생당하고, 한 스님은 환속하니 매우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청정비구가 자기 때문에 희생된 게 아닌가 생각하여서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 구산 스님을 만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집 한 채까지도 구산 스님께 바쳐 송광사 포교당을 만들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연이란 불가사의한 것이다.

1969년부터 발족된 불일회가 전국 대도시마다 결성돼 송광사 삼일불사에 불을 붙이니 1973년 국제선원이 개원되고, 조계총림 서울분원 법련사가 완성됐다. 국제선원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승려들이 제네바에 불승사를 세우고, 미국 카멜에 대각사를 세우니 명자 그대로 스님의 법력은 지구촌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송광사에서 목우(牧牛)의 가풍을 일으킨 구산 스님은 1983년 75세로 출가삭발했던 삼일암에서 시적(示寂: 고승의 죽음)하시니 물속에 뜬 달이 파도마다 달빛이 된 격이다.

조계종 정화운동서 혈서… 불일회로 불사 시작해 국제선원 개원

『삭발하는 날』· 『산문, 치인리 십번지』의 저자

현진 스님 5년만의 화제의 신간 !!

오늘이 전부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오늘이 전부다, 지금 숨 쉬어라.



이 책은 사랑과 수행, 인연 등 삶과 관련된 글을 모았다. 이전 책들이 절 집의 일상을 담담하면서도 재미있게 다뤘다면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도움의 메시지를 담았다. _동아일보

사랑하고 숨쉬고 수행하고… 삶의 절정은 오늘이다. _한국경제신문

스님이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는 행복 처방법은 한결같이 "사랑하라! 단, 오늘이 전부다. 서로 살 부비며 살아 있을 때 후회 없도록"이라는 것이다. _연합뉴스

소문난 글쟁이 현진 스님은 이 글을 통해 이왕 고달픈 인생살이라면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극복하자고 독려하며 현대인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_매일경제

'행운'에 정신이 팔려 '행복'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정한 일침'을 놓듯, 현진 스님이 깨어있는 삶을 위한 잔잔한 이야기를 펴냈다. 유쾌한 절집생활과 스님들의 수행현장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맑은 나침반 하나를 조심스레 건네준다. _불교신문

스님은 행복의 길(道)을 달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전부' '현재' '지금'이란 단어를 무수히 반복하며 나름의 '행복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_현대불교신문

스님의 글은 투명하고 맑다. 각질 없이 매끈하고 솜털처럼 부드럽다. 그러나 그 속에 삶의 본령을 툭툭 치는 큼직한 죽비를 잘 갈무리 해뒀다. _법보신문

신국판 양장 13,000원

현진 스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두 번째 출가

현진 스님의 수행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에세이



현진 스님의 수행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때로는 젊은 날의 치기와 번민들도 곳곳에 묻어 있는 이 책은 12년 전에 출판된 책의 내용을 조금 첨삭하고 멋스러움을 가미하여 발간한 개정판.

현진 지음 | 신국판 | 280쪽 | 10,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736호 T. 02)2198-5151 F. 02)2198-5153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⑪

부처님 출현은 강물에 달 어린 것과 같아

則是莊嚴兜率陀天 示現降神母胎 出家 詣道場 降魔怨 成正覺 轉法輪 入涅槃 於十方國土 究竟一切佛事 具足眞應二身 則是初發心菩薩也

'즉시장엄도솔타천' 부터는 보살이 수행하는 가운데 팔상을 장엄한 것과 깨달은 뒤에는 팔상을 나타내 부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범어의 도솔타는 지족(知足)이라고 번역한다. 도솔타는 육욕천 가운데 네 번째 하늘을 말하며, 여기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다. 내원은 보처보살이 거처하는 곳이고, 외원은 하늘나라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보살이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고자 할 경우 모두가 내원궁에 머물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하강하여 인간세계에 태어난다. 이 도솔천 내원궁은 미륵보살을 위하고 보처(補處)보살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이 성불하려 한다면 반드시 수행하는 가운데 도솔천 내원궁을 장엄하게 꾸며야 한다.

'어머니 태속에 강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하는 것은 바로 강생상(降生相)인데, 그 가운데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고 태속에 머물다가 태속에서 나온 이 세 가지 모습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승과 소승의 관점에서 차별이 있다.

대승은 세존이 어머니 태속에 있으면서 매일 쉴 사이 없이 모든 보살과 모든 오묘한 법을 설법했다는 관점으로, 이것은 전단누각에 머물면서 대법륜을 굴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소승은 보살이 육아백상을 타고 어머니태속으로 들어갔다는 관점이다.

'출가(出家)' 는 석가세존이 열아홉 살 때 한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한 모습을 말한다.

'항마상(降魔相)' 은 소승의 편에서는 마군이 실제 있다고 여기고 항복받았다는 학설은 있지만 대승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소승에서는 마군이 실제 있다고 집착하나 대승에서는 마군이 없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고 있어) 그 당체가 여여하게 부처와 마군이 평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성정각(成正覺)' 은 세존께서 납월 팔일에 보리수하에서 야반에 명성을 보시고 활연대오하여 등정각을 성취한 것을 말하며 '전법륜(轉法輪)' 은 도를 성취한 이후 보리수하에서 일어나 녹야원에 나아가 다섯 비구를 위해 사제법문부터 오시팔교(五時八敎)까지 설한 것을 말한다.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팔상성도가운데 최후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는 모습도 있고 열반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찾아오심도 있고 떠나가심도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떠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중생은 인연이 무르익으면 태어나지 않는 데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강생, 주태, 출태 내지는 법륜을 굴리다가 중생의 근기가 다하면 열반의 모습을 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열반하지 않은 가운데서 열반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이다.

부처님은 태어나고 열반하는 거래 단절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가는 모습 없어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중생계에 출현하시고 열반을 보이신 모습은 중생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부처님이 오셨다 해도 중생 때문에 오셨고 열반으로 가셨다 해도 중생 때문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천상의 달이 모든 강물에 보편하게 어리듯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간 것이 없이 시방 세계 찰진국토 가운데서 일체불사를 최후까지 성취하면서 진신(眞身)과 응신(應身) 등 두 가지 몸을 구족하게 갖춘 것과 같다.

진신은 진실한 지혜가 법신과 하나로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신론(起信論)>에서는 "자체에 대지혜 광명이 있어 법계를 보편하게 비춘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응신은 만물에 두루 호응하고 중생을 흡족하게 교화하면서 그들 마음의 한량만큼 갖가지 몸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비유하면 천상에 있는 하나의 달이 수많은 물에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 달이 실제로 오는 모습도 떠나는 모습도 없는 것과 같다.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부처님이 사물에 감응해서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에 어린 달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대승과 소승에서는 관점의 차별이 있다.

대승에서는 팔만사천상호와 찰진상호를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보편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존의 특별한 응신이다. 그러나 소승과 인간 천상 등에 감응할 땐 노비구 장육(丈六)의 몸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소승의 관점인 하열한 응신이다.

진신은 천상의 달과 같고 응신은 물속에 어린 달과 같다. 따라서 진신은 자체와 같고 응신은 작용에 해당된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작용은 중생의 인연을 따른다. 이미 자체를 따라서 작용을 일으켰다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연을 따른 것이므로 전체의 진신이 감응을 일으킨 것이 된다.

가령 작용을 거두어 자체로 귀결시킨다면 작용은 항상 인연을 따르면서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의 응신이 진신과 하나의 상즉관계여서 진신과 응신이 만족하게 구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교의 초발심주((初發心住) 보살의 경지이다.

華嚴經中 初發心時便成正覺 了達諸法眞實之性 所有慧身不由他悟 亦云 初發心菩薩 得如來一身作無量身 亦云 初發心菩薩卽是佛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인용 · 증명하고 풀이했다. 초발심주보살이 백계(百界)의 몸을 나타내어 팔상의 모습으로 부처가 된다는 의미다.

<화엄경(華嚴經)>에서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성취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교(圓敎)에서는 십주가운데 처음 발심주에 해당되지만 별교(別敎)에서는 십지가운데 초지에 해당된다.

십주이전에 이미 견혹(見惑) 사혹(思惑) 진사혹(塵沙惑)을 끝까지 다 끊고 여기에 이르러 최초로 일품무명을 타파한 만큼 중도를 증득한다면 법성진리와 서로 호응하게 된다. 따라서 부처님 모습을 수행분야만큼 증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부처가 된 것은 팔상성도로서의 부처님이지 최후에 번뇌를 여읜 오묘하고 극치에 도달한 법신불은 아니다. 그러므로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 수행지에서는 제법의 진실한 실체를 명료하게 통달할 수 있다. 진실한 실체는 무성(無性)의 성품인데, 이것이 바로 여래장 원각묘성인 것이다. 이것이 수행인지에 통하고 깨달음의 과위에 사무치는 것이며 일체 삼매공덕지혜와 법신이 자기의 마음가운데서 천연적으로 있는 것이며 조작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여래가 최초로 도를 이루셨을 때에 세 번이나 기이하다고 탄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온 대지 중생이 모두가 지혜 덕상을 갖추었건만 망상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성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어 각자마다 없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 "처음 발심한 보살이 여래의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한 몸은 바로 법신이며 한량없는 몸은 응신을 말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종열반(四種涅槃) 1

열반(涅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안락한 이상경' 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때 열반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처음으로 창안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 인도의 바라문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열반을 그 극치의 귀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범어인 열반은 원래 소산(消散)의 의미인데, 번뇌가 소멸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열반은 구역(舊譯)에선 멸(滅), 멸도(滅度), 적멸(寂滅), 불생(不生), 무위(無爲), 안락(安樂), 해탈(解脫)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당나라 현장스님의 신역(新譯)에선 원적(圓寂)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보는 업인을 따라서 부르고 업인은 다시 무명미혹을 연유해서 일어납니다. 미혹은 사견이며, 사견은 아집과 법집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견을 따라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은 다시 자신을 속박하며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무아(二無我)의 이치를 통달하셨기 때문에 사견을 일으키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으며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집견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세에 태어나선 고뇌를 받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탐욕심으로 추구하면서 스스로 죄악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사인과가 간단없이 상속 유전해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선 "인생의 모든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자아상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어나서 삶을 누린다 해도 기뻐하지 않고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내는 생사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해탈을 통해서 살아서는 번뇌를 영원히 끊고, 사후엔 멸도하여 생사윤회의 세계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두고 열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열반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정도로 오해해선 안 되며, 죽은 뒤에야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하에서 성도하신 이후 바로 열반에 드셨는데, 이 같은 열반의 이치는 심오하고 오묘하여 언어로서 비유가 불가능합니다.

현생에서 열반을 증득하고 허망한 견해가 다하여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는다면 그는 현생에 안락할 뿐만 아니라 미래생에서도 생사해탈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연념보리심처처안락국(念念菩提心處處安樂國)이라고 했습니다. ■정리=張如舟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종단 등록자중 제 2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니/포교사는 정관 제 6조 및 8조 종헌 제18조에 의거 총회에서 제적결의
■ 제적일자 : 2009년 3월 1일부
제적자는 본 종단명의로업무 일체금지, 사찰등록증, 승려/포교사 증 효력상실
■ 본 종단 소속으로 각 세무서 등록 즉각 취소요망, 년말전산 영수증 발급금지요망
■ 전화 : 055)672-4394

제 2차 제적자 명단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동천사	대구동구	최덕모	혜암	성불사	부산강서	유영순	해련	천봉선원	산청생비량	최영수	천봉
흥련암	대구남구	이경자	묘행	내원암	부산동래	박일숙	정혜	해탈사	창녕	박종환	천경
학장포교원	부산해운대	김난희	흥련	자비정사	마산	신종수	연봉	내원암	고성	박희대	원봉
대곡사	부산구포	김청길	영봉		마산	변재은	수봉	소원사	함안칠서	정옥출	청송
	부산사상	한우조	춘봉	구원사	김해	김양웅	도성	청량암	고성상리	이향숙	연화
	부산연재	허영호	벽봉	선왕정사	김해	이동식	무등	월화암	울산울주	김외자	련봉
구포포교당	부산구포	정경옥	백련	구룡정사	김해	류하곤	해봉	흥련사	울산화정동	홍화자	법화
오봉정사	부산대저	이외득	호련		김해	한오석	춘산	영축암	울주	김수남	대련
월정암	부산괴정	이영숙	정심	광명포교원	김해	정광열	명봉	천룡사	울산	유무호	법성
백마암	부산주례	김옥자	수정	약수암	김해	김맹엽	고경	영수사	울산남구	박인성	수인
대원사	부산대저	장점자	덕련	백련사	전남나주	이덕자	원명	우리절	거제연초	박성훈	일봉
해선암	부산엄궁	정점덕	련수	대성사	진주나동	황정길	법정	관음선원			
	부산남구	김영옥	반야	보석사	창원	김석복	신수				

2次제적 37名 以上

불기2553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장 신 용태 법련
총무원장 강 경우 송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제23회 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신진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상분야
가.연구분야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전반에 걸친 학문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실천분야
불교에 입문하여 10년이 경과하고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개인(연령제한 없음) 또는 단체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후보자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본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 (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 (총장 · 대학원장, 기관및단체의 장,역대 불이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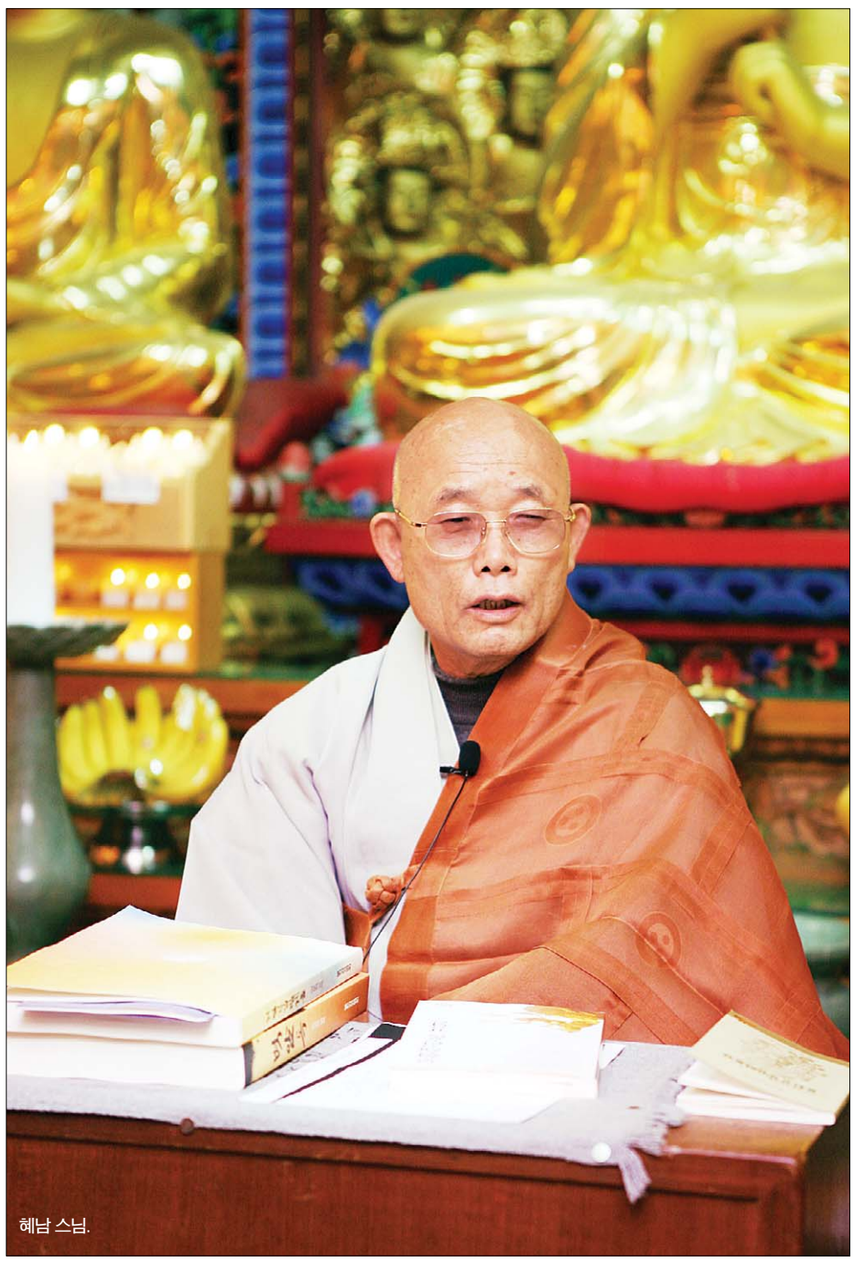
접수마감 2009년 5월 31일까지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접수처 및 문의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불이상담당자 앞 (010-3772-8179)

不 二 會

혜남 스님 '화엄경' 법회

바로 믿고 알고 실천해 '부처님 법계' 가자

강 사 : 혜남 스님 (통도사 율주)
일 시 : 2009년 4월 28일
주 제 : 〈화엄경〉 보현행원품
장 소 : 서울 기원정사(구 홍제사)
주 최 : 불천강경협회


혜남 스님.

서울 홍제동 기원정사(회주 성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불천강경법회(不千講經法會)'는 재가수행의 마음터를 울리는 도심 속 수련회다. 불천강경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화엄경〉과 〈벽암록〉 등을 번갈아 익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법회에서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초청법문으로 〈화엄경〉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설했다. 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제방 강원에서 강의한 대강백으로 더 잘 알려진 혜남 스님의 법문을 통해 광대한 보현행원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진나라 때 번역한 60권 〈화엄경〉에서는 교주로 노사나불을 말하지만 당나라 때 번역한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화엄4조로 알려진 청량 징관 스님은 '〈화엄경〉의 교주는 진신과 응신에 걸림이 없는 부처님 더 나아가 십신(十身)에 걸림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을 설하는 분(說主)이 부처님인 경우는 39품 가운데 비교적 내용이 짧은 아승지품과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의 두 품뿐입니다. 나머지 품은 모두 그 지위에 어울리는 보살님들이 법을 설합니다. 특히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에서는 53선지식이 모두 그 법회의 설주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현보살은 '이치'를 표현하니 문수와 보현을 합하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된다"고 징관 스님이 말씀했듯 〈화엄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식으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꼽습니다. 이중 굳이 한분을 꼽는다면 보현보살을 말합니다.

〈화엄경〉 중 보현보살이 설법하신 부분은 제1회 전체인 '세주묘엄품'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과 제7회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보현행품'과 '여래출현품', 제8회 '이세간품' 그리고 53선지식의 최후 선지식입니다.

즉, 〈화엄경〉의 처음과 끝이 보현보살의 설법인 것입니다. 〈화엄경〉 큰 강령인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 바로 부처님 법계에 들어가자'는 단계 핵심은 모두 보현보살이 설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여래 장자(長子), 법계(法界) 원왕(願王)이라고도 합니다.

53선지식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설하는 80권 〈화엄경〉 마지막 두 게송을 소개하면

세계 티끌 마음생각 헤아려 알고
큰 바다의 물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꿰매더라도
부처님 공덕 다 설할 수 없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공덕의 바다를 듣고
기뻐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면
칭찬하고 찬양한 바와 같이 다 얻으리니
삼가 여기에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첫 번째 게송의 뜻은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만들어 그 숫자와 같은 중생들의 갖가지 생각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향수해와 같은 큰 바다의 물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고 바람을 꿰맬 수 있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게송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위에서 설명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면 본인이 칭찬하고 찬양한 바와 같이 언젠가는 본인이 부처님이 얻은 공덕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근신하여 여기에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 끝맺음과 달리 별도 유행돼 〈보현행원품〉으로 널리 독송되는 40권 〈화엄경〉의 제40권에는 '광대무변한 부처님 공덕은 나와 같은 보살이 다 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불가설불가설 불찰미진수 겁이 다하도록 연설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다고 설한 다음에 만약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열 가지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 가지 서원 가운데 네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방 세계에 계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내가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이 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화엄 법성도리에서 보면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이 육도에 유전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라고도 말하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는 수행'을 닦는 보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비롯해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에게도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똑같음으로 꿈틀거릴 줄 아는 것은 모두 불성이 있는 것으로 믿어, 그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식물도 함부로 밟아버리지 않도록 해 자연 환경까지도 함부로 파괴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공경 · 공양… 모든 사람 부처로 보라는 것
참회로 업장 소멸… "허공계와 중생계 다할 지라도" 발원

둘째는 여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칭찬하는 수행입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을 찬하는 게송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주묘엄품'은 화엄법회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성도를 축하하고 법문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성도를 축하하러 와서 각각 보고 느낀 대로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활용해 인간 상호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무수한 유공자를 칭찬하고 푸른 산 흐르는 물과 심지어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널리 공양을 올리겠다는 소원입니다. 시방삼세에 계시는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향으로 공양 올리고 등으로 공양 올리는 물질적인 공양도 있고 보다 수승한 법공양도 있습니다. 법공양이라는 것은 경전에서 설하신 대로 수행하는 공양입니다. 보시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보시하고 인욕 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인욕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현행원품'에서는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공양,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사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떠나지 아니하는 공양이 있습니다.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공양'은 각자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남에게 이익 되는 일을 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부처님을 향한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란 중생의 고통을 가엽게 여겨 그것을 내가 대신하여 주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 계합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이란 것은 부지런히 일체의 착한 일을 닦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란 뜻입니다. '보살의 사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란 보살의 사업을 버리면 일체중생을 즐겁고 이익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떠나지 아니하는 공양'이란 항상 보리심을 지니고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업장을 참회해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무시이래로부터 지은 한량없는 죄업을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이 해 모두 참회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발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소원을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생각이 이어져 끊어짐이 없게 하여도 몸과 말과 생각에 피로하거나 싫어함이 없이 나의 원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찾아온 사람만 가지고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두번째
백초 스님의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불서광장



입보살행론|혜능 스님 편저|부다가야 펴냄|1만2000원

'지복에 이르는 길'을 부제로 한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후 보리심을 주제로 하는 논서 가운데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고 평했던 내용이다. 편자 혜능 스님은 이 가르침을 달라이 라마로부터 직접 전해 받았으며 티베트 승려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행에 전념하면서 글을 다듬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수행해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키고 일체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길을 게송으로 제시하고 있다.



섬에 있는 암자를 찾아서|이봉수 지음|자연과인문 펴냄|1만원

섬기행 칼럼니스트이자 이순신 연구가인 저자의 구도수필집이다. "그림자를 벗 삼아 쵤저히 홀로 다녔던 여정은 어쩌면 구도의 길이었다. 오늘도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말로 책의 내용과 의미를 함축하는 저자. 그는 섬 속의 또 다른 섬인 암자를 찾아 거기 스며 있는 역사와 문화의 맛을 체험한다. 섬과 암자의 어우러짐이 더러는 시와도 어우러져 읽는 맛을 더한다.



딴뜨라 입문|라마에시 지음|주민황 옮김|무우수 펴냄|1만원

"완전한 깨달음의 완전한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가짐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딴뜨라 수행의 궁극은 마음의 편안에 있다. 몸을 관찰하고 몸의 속박을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 수행하고 집착을 끊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더러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도 하지만 딴뜨라 수행은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종파 가운데 가장 수승한 가르침으로 인정받고 있다. 흔하지 않은 입문서다.



따주기 대백과|청월 스님 지음|예나루 펴냄|2만4500원

누구나 응급상황을 당할 수 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할 것인가? 119로 연락해 후송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병세는 1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기에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알아야 한다. 따주기는 위급할 경우나 병원까지는 갈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아주 유용하고 안전한 응급처치법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숙지해 둘 만한 내용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생긴대로 병이 오고 생긴대로 치료한다|조성태 지음|샘이깊은물 펴냄|1만2000원

병이 오는 원인을 '생긴 모양'에서 찾는 것이 형상의학이다. 문제 속에 답이 있듯이 생긴 형상에서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형상과 체질 생활 습관 등에 주목하며 병의 원인 제거와 치료법을 연구해 온 저자는 "신체적 흠을 미리알고 거기에 맞추어 섭생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말한다. 형상의학의 최대 미덕은 예방의학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소리없는 소리|황명찬 지음|지혜의 나무 펴냄|1만2800원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책'을 내는 필자는 많다. 그러나 여전히 불교는 어렵다고 말한다.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지레 어려움에 낙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불교를 알기 쉽게 이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오랜 강의 경력과 신행 경력을 조화시켜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불교를 설명한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나를 바로 알아야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대행 스님 법어집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 행복 길어 올리는 지혜의 가르침

"집 지어놓고 들어가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동차 사서 몰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이 나를 살리고 자동차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이 육신 껍데기, 또는 '나'라는 형상을 나로 보지 말고 우선 진짜 주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문은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쉬운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행 스님이 법회에서 들려준 법어와 불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삶은 고가 아니다>는 1996년 처음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22쇄나 발행해 왔다. 2005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최근 다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편집을 새롭게 하여 출간됐다. 불자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즐겁다는 말 보다는 '괴롭다' '힘들다'는 말을 훨씬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정말 삶은 괴로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불교로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다. 대행 스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들려준다. 그래서 삶은 고가 아니라 무한한 기쁨이요 희망임을 확신시킨다.


대행 스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서 온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 된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교리의 키워드로 대개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삼법인' '육바라밀' 등이 꼽힌다. 이 교리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을 이루는 내용들이 갖는 공통점 역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물론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어딘가 특별한 곳에서 뭔가 다른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러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곳과 색다른 행위를 통한 수행을 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알고 믿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생활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을 지어 놓고 길에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 자동차를 사 놓고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어리석다. 여기서의 집과 자동차는 육신을 뜻하고 들어가 살고 운전하는 존재는 마음을 의미한다. 자기의 본래 모습 곧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비유다.



대행 스님은 <삶은 고가 아니다>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 자기의 진짜 뿌리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다양한 비유와 재미있는 설화들이 동원되고 보통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 속에서 길어 올린 진리의 고갱이들을 적나라하게 제시한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싶은 사람에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맛있는' 가르침들이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맛의 정체는 '진실함'이다. 대행 스님은 책의 서두에서 그 진실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말을 할 때면 언제나 오직 한 가지,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니, 말로써 진실을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내게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 몸이 가루가 되어도 좋고 죽어 장구벌레가 되어도 좋습니다. 말이 말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펴냄|1만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부처님 생애와 불교 역사 읽기



불교, 교양을 만나다
이현정 글 · 그림
무한 펴냄|1만2000원

이화여자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국대학교에서는 신문방송학으로 석사를 받은 이현정씨. 그는 20여 년 간 불교방송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작가로서 작품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덜렁이 아나운서>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등 책을 내 왔다. 동양화가 아나운서 스피치 트레이너 등 일인다역을 하면서도 늘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는 그가 '교양'이라는 키워드로 불교를 소개했다.

책의 제1부 '교양으로 읽는 부처님 생애'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인간의 측면에서 다루었고 제2부 교양으로 읽는 불교 이야기는 불교의 역사적인 흐름과 변화 불교의 기본 교리와 용어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무욕의 맛' 만들기 도전해 볼까?



북한 사찰음식
정산 스님 지음
다할미디어 펴냄|1만5000원

출가해 사찰음식의 '매력'에 빠져 전승과 보존 개발에 몰두해 온 정산 스님이 처음으로 북한 사찰의 음식을 집대성 했다. 정산 스님은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를 해 왔지만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북한 사찰음식의 세계를 펼칠 수 없었다. 다행히 2007년 방북 기회가 생겼고 사찰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접촉했다. 그간 알고 있던 북한 사찰의 음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다듬는 계기가 된 것.

그렇게 해서 정리된 북한 사찰음식은 현대불교 신문에 60회에 걸쳐 소개됐고 이번에 책으로 묶으며 내용을 보완했다. 집에서도 한 번 도전해 볼만한 음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4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5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6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7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8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9	오늘이 전부다	현진	클리어마인드
10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02)953-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騎牛牧童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값 15,000원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 2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옻으로 선화를 칠했네

범주 스님 5월 20~26일 한국갤러리서 '칠선화' 첫 발표





상주 달마선문화예술원에서 정진 중인 범주 스님과 '나무 달마도'.

오랫동안 선묵일여를 추구하며 달마도 선화 수행정진을 해온 범주(梵舟) 스님이 5월 20~26일 서울 인사동 한국갤러리에서 '칠선화(漆禪畵)' 발표회를 갖는다. '칠선화'는 먹물로 그린 선화에 역사상 최고의 생활재료인 옻칠을 접목해 새롭게 선보이는 화법이다.

옻칠은 팔만대장경, 등신불 등을 천년 이상 보존할 정도로 방충(防蟲), 방균(防菌), 방습(防濕), 방산성(防酸性), 내구성(耐久性)과 원적외선 방출 효과로 가장 오래 보존되는 물질이다. 범주 스님은 지난 2년간 선화(禪畵)의 정신성과 옻칠의 표현성을 옻칠선화 즉, 칠선화(漆禪畵)로 접목해 왔다. 35년간의 선수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자손대대로 집안을 밝힐 수 있는 최상의 선화(禪畵)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칠선화'라는 새로운 미술의 장르가 탄생된 것.

100% 천연의 닥지와 생칠을 사용해 짙은 밤색의 오래된 고화(古畵)같은 느낌이 연출되는 칠선화는 그 제작 과정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범주 스님은 "참선 수행자의 밝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화라면, 거기에 천년을 가는 옻칠을 더해 대대손손 밝은 기운을 비추게 하는 작업이 칠선화"라면서, "종이를 스치기만 해도 옻이 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고된 수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옻나무를 긁으면 나오는 즙, 즉 생칠을 이용해 옻종이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그 옻종이 위에 선화를 그리고 표구용 천과 액자 테두리에도 옻물을 들여서 완성한다.

범주 스님이 어렵게 창안한 칠선화에 대해 옻 장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칠룡 회장은 "옻 오름(漆瘡)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천년 한지에 만년 옻의 토대를 세워 '천년 달마도'인 칠선화를 완성시켜 공개발표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은 독창적인 칠묵화(漆墨畵)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지난 25년간 선묵화(禪墨畵)를 연구하며 현장에서 커다란 붓으로 거침없이 그려내는 범주 스님의 '선화 퍼포먼스'는 선적 감화력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님의 칠선화는 선차(禪茶)를 주제로 한 '선다화(禪茶話)'를 특징으로 한다. 20일 오후 3시 '선 퍼포먼스'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칠선다화(漆禪茶話) 100여점과 선다기(禪茶器) 50여점이 전시되며, 이 모두를 담은 칠선화집(漆禪畵集)도 발간된다. 아울러 스님은 옻칠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범주 스님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선(禪)과 예술을 하나로 하는 선(禪) 공부를 하기 위해 24세 때 경허, 만공 스님의 선맥을 이은 인천 용화사 조실 전강 선사에게 출가했다. 인생을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했고, 선악(善惡)이 일어나기 전의 절대 자리를 깨닫고 싶었다. 그래서 본래 나의 본성자리, 우주와 진리의 자리, 한 생각 이전의 자리, 그것이 선(禪)임을 체험했고, 선수행의 정도에 따라 마음이 맑아질수록 의식이 밝아지고 자비와 사랑이 커짐도 느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한산습득도, 산수도 등의 선묵화를 통해 수행의 밝고 맑은 기운을 대중에 전해온 범주 스님. 이번 선칠화전은 스님의 선예술이 독창적인 기법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불교미술의 수준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02)720-1161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문수보살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

수안 스님 13~26일 토포하우스서 11년만에 그림전





마음의 눈으로 선화를 그리는 수안 스님과 그의 작품.

"마음을 비우면(空) 이 세상 모두가 극락세계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진실과 희망, 그리고 환희를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은 곧 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이며, 그것이 곧 문수보살의 마음이기도 하다. 수안 스님(통도사 문수원)의 법명인 '수안(殊眼)'은 반야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문수보살의 심안(心眼)을 뜻한다. 수안 스님의 그림은 바로 문수보살의 눈으로 본 반야와 열반의 세계를 표현함이다.

천진무구한 동자들의 밝은 얼굴을 통해 해탈과 법열의 경지를 표현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대표적 선(禪)화가 수안 스님이 세속 나이 일흔을 맞아 11년 만에 그림전을 연다. 5월 13~26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여는 전시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와 선화, 전각이 함께 어우러진 스님의 최신작 8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평소 좋아하는 천진무구한 아이들, 색깔고운 예쁜 꽃, 날개를 힘껏 펼치는 학 등 최근작 선화와 전각그림 등이 더욱 깊고 맑은 빛깔을 드러낸다.

"요즘 세상이 사상이든 물질이든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어요. 다들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이든 물질이든 다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림은 골방에서 그리지만 나눔은 밝은 곳에 우리 이웃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쌀 한톨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번 전시 개막 때인 13일 오후 6시 '수안 스님 인보집' 출판기념회도 함께 연다. 반야심경과 인불(부처 전각), 선(禪) 시구 등이 담겨 있는 200쪽 분량으로 스님이 전각집을 내고 전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끝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변호사협회 초청으로 해외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수안 스님은 1940년 통영에서 태어나 17세 때 석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월하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안거를 났다. 이러한 수행력을 바탕으로 스님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건 이재민돕기 선묵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50여회의 전시회를 가지면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선(禪)의 세계를 그림으로 전해왔다. 32년이 지난 지금 스님은 중국과 러시아, 유럽, 남미 등지에서 수차례 초대전을 가질 만큼 선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명성과 명예를 좇지 않고 막힘 없고 가식 없는 선화를 그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불우아동돕기 행사 등 어린이 관련 행사 외에는 되도록 암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참선과 더불어 시와 그림으로 수연행(隨緣行)을 닦고 있다. (02)734-7555

김성우 기자

펜으로 살아난 전통건축

국립청주博 '봄문화축제' 특별전서

국립청주박물관(관장 김성명)은 5월 24일까지 제5회 봄문화축제의 특별전으로 '펜화로 만나는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펜화가 김영택 선생이 지난 십 여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건축물과 산수를 오롯이 담아낸 펜화 60여 점이 선보인다.

2008년 2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그 원형을 많이 잃어버린 국보 1호 숭례문의 1900년 무렵의 모습을 비롯해 금강산 보덕암,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진천 보탑사, 봉정암과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의 1890년 경 모습, 창덕궁 부용정, 밀양 영남루, 대전 남간정사 등 우리 땅의 궁궐 · 문루(門樓) · 사찰 · 정각(亭閣) · 집과 정원 등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수십만 번의 선을 그어 완성한 작가의 펜화는 치밀하고 정교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아주 가느다란 선을 거듭하고 거듭해 이루어낸 정밀한 풍경에는 흑백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스함과 더불어 우리 건축물 특유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평이다.

김성우 기자

대한민국 차인 다 모여!

19~24일 대흥사서 차인대회

해남 대흥사와 해남군은 5월 19~24일 한국차의 성지 조계종 제22 교구본사 대흥사에서 차 애호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차인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한국차문화협회, 전국차인연합회 등 40여 개 차 관련 단체와 원로 차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차인대회.

대회는 19일 대흥사 초의관 전시실에서 차 도구 유물전 개막을 시작으로 중견작가 도예전과 대한민국 차 공예 명장전 등이 이어지며, 23~24일 본행사 기간에는 '다악제'와 '전국 창작 다례복 경연대회', 원로다인 차 도구 소장품 경매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전국 15개 차 모임이 참여해 차 음식을 경연하는 '다찬회'와 백련사, 도갑사와 미황사, 일지암 등 대흥사 산하 암자 및 말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사찰 차회는 대규모 찻자리로 이번 대회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흥사와 해남군은 대회기간인 23일과 24일 대흥사 경내에서 녹차 만들기 체험 등의 '제18회 초의문화제'도 함께 가질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홍순지씨 '경허-깨달음의 노래' 출반

명상음악 '경허 선사' 등 10곡 수록

명상음악가 홍순지씨가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1849~1912)의 선시를 가사로 엮은 앨범 '鏡虛(경허)-깨달음의 노래'를 최근 출반했다.

이번 앨범에는 '용정강에서' '만행' '그 어느 산 맑고 그윽한 곳에' '여정' '흰 구름 깊은 품에' '은선동에 노닐며' '화엄사 가는 길' '금산 보석사에서' 등 경허 스님이 쓴 선시를 가사로 삼은 9곡과 스님의 수제자 만공 스님의 시 '경허 선사' 등을 포함해 모두 10곡이 수록돼 있다.

홍순지씨의 청아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번 앨범의 작곡은 선(禪) 음악전문가 백영운씨가 맡았다. 백영운씨는 "경허 스님의 한시를 풀어 가사로 다듬었고, 편안하고 친숙한 멜로디를 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웃음보살 불등거사 〈44〉

구성 : 김흥인



나무를 베어 버린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국왕에게 키 크고 가지가 무성한 좋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장차 열매를 맺으면 향기롭고 맛있을 것 같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다가가자 왕은 그에게 말했다. "이 나무는 장차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먹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나무는 높고 넓어 아무리 열매를 먹고 싶어도 얻을 도리가 없겠군요." 그는 그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베었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한갓 수고만 했고 다시 나무를 세우고자 했으나 이미 죽어 버려 살아날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법의 왕인 부처님에게는 계율의 나무가 있어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마음으로 원하고 즐겨 하여 그 열매를 먹으려면, 마땅히 계율을 지키고 온갖 공덕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저 나무를 베어 버린 다음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계율을 부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통현장자가 논을 짓다
통현조론(通玄造論)



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통현조론(通玄造論)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장자인 통현이 〈화엄경〉의 논을 지을 때 밤에 불이 없어 자신의 입에서 흰 광명을 비추어 경을 보고, 호랑이와 여인들이 나타나 논을 짓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이통현(李通玄) 장자는 중국 당나라 사람으로 고금의 학문을 두루 연구했으며 유교, 불교 경전에 정통했다. 719년부터 80화엄을 가지고 두문불출하며 논을 지어 경을 해석했으며, 매일 대추 10개와 잣나무 잎 떡 하나씩 먹었다고 하여 조백대사(棗栢大士)라 불렀다. 730년 96세로 감중에서 입적했으며, 저서로 〈화엄회석〉 〈십문현의배과석략〉 등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개원 연간 〈화엄경〉을 가지고 맹현의 고산이라는 노비 집에 이르러 논을 지어 〈화엄경〉을 연창하면서 정원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을 계속하니 고산이나 이웃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의 거동을 추측할 수 없었다. 그는 날마다 대추 열 알과 측백나무 잎으로 찐 떡 한 조각만 먹었을 뿐 나머지 다른 물건은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 후 남곡의 마가촌에 있는 옛 불당으로 거처를 옮겨 작은 절을 짓고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었는데, 고씨가 대추와 떡을 공급하고 또한 그가 지은 논도 경전과 아울러 그곳으로 가져왔다. 어느 날 통현 장자는 한씨의 정원으로 가다가 도중에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는데 통현은 호랑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업고 온 경론을 호랑이 등에 싣고 윗마을에 있는 토감으로 길을 잡으니 호랑이는 귀를 늘어뜨리고 앞에서 걸어갔다. 논을 지을 때 밤에 기름과 촛불이 없어 밤마다 붓을 잡고 있으면 그의 입의 두 모서리에서 흰 광명이 나와 그 길이가 한 자 남짓하여 빛나게 방안을 비추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토감에서는 아름답고 청아한 두 여인이 나타나, 매일 음식 한 합을 주었고 통현이 다 먹고 나면 그릇을 거두어 그곳을 떠났으며,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종이와 먹에 이르기까지 공급해 보내오는 것이 모자람이 없었는데 논이 이룩되자 홀연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지은 화엄론은 40권이며, 총괄하면 80권에 달한다. 이것은 〈화엄경〉의 대의를 밝힌 책이다."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중생을 위한 원력의 삶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불보살들이 보살펴 줌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나무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나를, 없애는 게 나무(無)라고
가슴에 묻어둔 거, 한(恨)없이 풀어내고
서로가 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길 하나

말이란 함부로이 헤프게 쓰질말라
곱게 다듬은 말씨, 여운이 있어 향기롭고
사랑도 울림과 같아, 퍼질수록 꽃핀다

–김월준/〈유심〉5 · 6월호

빙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지난 생애에 맺어진 인연법에 의해 잠재의식(말라식, 아뢰야식)에 원한의 씨앗을 심었다가, 보복을 겪는 행위를 빙의라 한다.

–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들

1. 지금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를 아는자는 많다. 그러나
2. 조상 누구가 무엇을 요구한다면서, 천도재를 하면 빙의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3. 이러한 말을 들은 관계자들은 순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4. 천도재란, 법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 아래와 같이 빙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5.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혜안으로 원귀들을 만난다.
6. 한 두 영가의 작용은 보통 우울증이라 하지만, 영가들의 집단체(5–6위 이상)로 빙의된 사람의 몸 속에 자리하고 있다.
7.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의 업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때 대단한 기도의 힘 즉, 법력이 작용한다. (한 영가당 3–4일 정도 소요됨)
8. 업이 소멸되면, 영가의 에너지가 쭈욱 빠져서 실신한 사람처럼 되며, 이러한 영가를 혜안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9. 진행자의 법력으로 "반야선"을 받아 영가를 태워서 영계로 보낸다. 〈사악취(지옥, 아귀, 축생, 수라)를 벗어나서 천상계의 28천의 권속이 된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해발 1100고지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15년간) 수행하면서 영가의 악업을 녹여주고, 제거하여 주면 반야선을 받아 영계로 보내는 수행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영가는 반드시 반야선에 의해서 영계로 가게된다)

** 바라옵나니 이 공덕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지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3동 1596–11번지 103호
서진포교원 선운 합장
문의 010–6289–1233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김정도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 팩스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 1권 2,745 페이지
가격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가정안택의식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梵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사무실고사의식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자동차고사의식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慧草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선박고사의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기타편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9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종교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 감정 위주로 속성 개인지도
빙의 퇴마법 속성 개인지도
010-7443-3060
(도통 합장)

전통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각정 제의식)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 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불교의식.영가천도
상담. 49재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복고춤
02)8677-3786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사주학 수강생 모집
"사주공부의 핵심은 음양오행과 육신이다"
초보에서 통변까지 책임지도
정통사주학 완성 저자 직강
- 소수정예반 : 3명이내 또는 1:1 개인지도

종로3가역 1번출구 낙원상가 방면
김현산 역리원
011-9113-8545
02)741-8449

정통사주학 완성 (수기본)
"사주학은 쉽게 배워서 쉽게 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책으로 사주학 공부를 완성하세요.
- 저자 : 김현산 - 정가 : 25,000원
- 구입처 : 김현산 역리원

011-9113-8545
02)741-8449

"貴한 인연"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을 온전히 맡겨주실
아름다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불공 천도재 무보시 집전
010-2446-2626

- 불자님께 맞는 기도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시는 분,
- 원인모를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
- 우울증, 공허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시는 분.
- 빙의, 수맥차단, 태아령 천도 무료상담

표심스님 010-7588-4504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암자)
054)772-4133

전통 범패 배우면서 부전 하실 분 모십니다
(45세 미만 / 마산)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비구니 사찰 공양주 모십니다
▷ 경북 하양. 향림사
(40~50대, 숙식 가능한 분)
053)854-21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010-9308-991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87-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465-44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후반)
011-9660-4241
052)254-614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송림사)
054)976-81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오래 계실 분, 강원도)
010-9219-76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 입학문의 ☎ 053)474-8228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스님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면 별것 아니다.
"본 강의"와 因緣되어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 최면학, 빙의처유법, 전생요법,(참 쉽다) 천도재의식(특별비법)
2. 빠져나오는 법,(침 놓는 곳 상혼철폐의장응법, 관상학, 간장마주기(영혼식), 복치료
3. 전생업보격국법, 약손 만드는 법, 7일 道人비결법(무료) 등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하 법왕사 內
※ "침" 특수활용비법! (한의학박사 특별강의)
*** 인연있는 비구, 비구니들이여 좋은인연 되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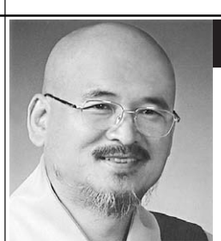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5/21(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불교 영상의 모든것
www.불영.kr
불교뉴스 · 홍보영상 제작
문의전화 02)2236-7208 / 017-207-7208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비법 전수생 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컹비법 공개!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개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 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역앞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잡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형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소승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임상 5년에 비전으로 남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자립도가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봄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패)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대상 :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담)
※ 각 신행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후원금 :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혜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비산시장 옆)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100,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 ₩100,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100,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 ₩100,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100,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10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10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양평	● 위치 : 대구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법당 : 20평	● 법당 : 21평
● 요사 : 24평	● 요사 : 1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560평	● 부지 : 700평	● 부지 : 190평
● 전세 : 6억	● 가액 : 20억	● 가액 : 7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컨통사찰

● 위치 : 부산에서 30분 거리
● 부지 총평수 : 6천평 ● 건물 : 7동, 전통 목조기와 법당(5포 7포)
● 지장전 15평(목조), 공양간 50평, 요사채
● 산세 최고(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따뜻한 남향
● 텃밭 (공터) : 2,000평, 주차장(버스) 100대 주차가능
● 양도가액 : 15억(40억 불사)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96평, 건물 200평
● 도심 현대식 4층 건물
● 가액 : 10억
(은행 3억 융자 7억 인수 가능)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과 경주 사이
● 대지 123평,
사용면적 약 200여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가액 : 2억
016-436-65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부원동
● 평수 60평,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약간)
010-2618-7676

전통사찰(급)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45억(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 안양지역
● 평수 : 76평. 방4개
공양간, 샤워실, 회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 (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인연 닫는 스님에게
"시세에 떠나"양도코져 합니다
010-732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팔공산 은해사에서 15분거리
● 대지170평, 건물60평,
입지환경 최상,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사정상 급 안내 합니다
● 기도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가액 : 1억
011-437-6950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큰방2,작은방2,거실,욕실,
화장실2,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당(급)안내

● 대구 동구 신천지하역2분거리
● 옛한옥 50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및 사글세 800만원
시설비는 약간
● 역학보시는스님 최적지
010-5886-30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자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남
● 법당 50평(전,월세)
방3개(법당시설완비)
● 강남 최고 법당
● 전세 : 7천만원
보증금 2천5백만원,월200만원
010-5545-3071

토 굴 안 내

● 위치 : 칠갑산 인근(충남 청양)
● 대지 : 사용승락 필
● 건물 : 약20평(목조 황토)
● 가액 : 절충(임대가)
010-3166-45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부지 : 8,000평
● 가액 : 5억
010-5676-556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등기필 104평,
기타 사용지 있음
● 건물 : 법당 (단청), 요사채,
스님친견실 3동, 주차 20대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9-550-9725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물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넓고 뒤 야산 접
● 가액 : 9억 8천만원
011-286-510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전 163평, 임야 175평
● 한옥토굴27평,방2개,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4,200만원,
꼭필요하신분만전화요망
010-8868-9407
054)673-6496

사 찰 안 내

● 낙동강 시대 살기좋은 대구 달성
공기좋고 햇살 밝은 남양집
도심속 고즈넉한 한옥주택2채
넓은 주차장과 정원 잘 가꾸어진 마당
● 교통은 사통팔달
● 부지 165평
● 융자포함 2억 1천만원
부지추가 매입가능 ● 절충가능
010-3693-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부근
● 대지 : 220평
● 건물1층, 요사채47평
(방6, 주방1, 거실1, 화장실1)
2층 법당 23평
(삼존불,후불탱화,신중단,
칠성단,영가단,산신당 4평 별도)
● 기타 : 심야전기,옥외주차장,
약80평, 옥외화장실 남 · 녀 각1
● 집기일체, 당일법회가함,몸만오시면됨
● 노령으로 양도코자함
● 가액 : 답사 후 협의결정
011-9114-993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밭 1,000평, 산 3,000평
대지 9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2.5평
요사채 60평
● 화장실 3평(외부1), 내부 2개
주차장 200평
스님 요사채 25평
● 가액 : 5억
(오셔서 보시고 가액 결정)
010-9219-769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내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 개,주방2,
거실1,욕실1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월세 가능함
● 주인직접
011-792-8969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봉안당 및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복수면
대전에서 20~30분거리
● 부지 2140평
● 봉안당 100평 육천기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식당 및 스님방,관리동20평
● 가액 : 47억
011-402-55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모서면 면소재지
● 대지 240평, 밭 550평
임법당, 산신각
● 석불약사여래좌상
● 가액 : 9천 5백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010-8959-08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2945-7704

도심속 사찰안내

부산시내 도심속 깊은
산속의 정취가 있는 암자
● 전체평수 200평,
주위 1,000평 활용가능
● 노천불, 법당20평
● 방 大 3개, 거실 1,
큰 마루1 현대식 생활환경
● 가액 : 1억 8천 500만원
011-857-3775
051)866-113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경기도 광주
● 대지 : 등기 평수 374평,
사유지 포함 450평 사용
● 임법당12평, 임요사채50평
계곡접, 산세좋음
● 산신, 용궁, 기도 도량
● 가액 : 절충
● 임대가능 : 전세 5천
월세가능
010-9240-1384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 전체 304평,
법당 시설일체 완비
* 주지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 가액 : 1억 3천만원
* 하실분 만 연락 바람
011-873-4714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 아들바위 부근
● 주택2동, 텃밭조금
● 도지료 1년 11만원
● 건축물대장 있음
● 가액 : 4천 5백
010-5201-833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중심가
● 평수 : 30평(2층)
● 삼존불 및 시설완비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2540-757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1
● 가액: 보증금800만원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 등 6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 사량도
● 평수 : 대지 40평,
임야 220평
합계 260평
● 가액 : 7.500만원
(절충가능)
● 부처님 모셔져 있슴
010-6569-7027
016-483-14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산신각 : 3평
● 가액 : 4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3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45평, 삼존불,
칠성, 산신,용신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에
월2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010-3842-3334

● 위치 : 울산 큰 도로변 옆 시내
● 평수 : 50평
● 삼존불,칠성, 산신, 용신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에
월2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052)274-1113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010-6739-6426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총평수 :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산신포함 약 100평
※현재 공시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
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
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 가액 : 평당 30만원
010-5501-31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70평
● 법당1, 공양간, 방 3칸
● 전체도시가스, 전기승압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월120만원
● 최고시설. 꼭 필요한분만연락바람
010-7112-1823
032)612-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잘못되는 거든 잘되는 거든 다 마음의 조작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어머니 마음으로…

문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부모님께 제가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는데 이제 저도 처음으로 제 자식에게 꽃을 받고 보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깊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꽃을 받을 만큼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도 됩니다. 스님,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따뜻한 어머니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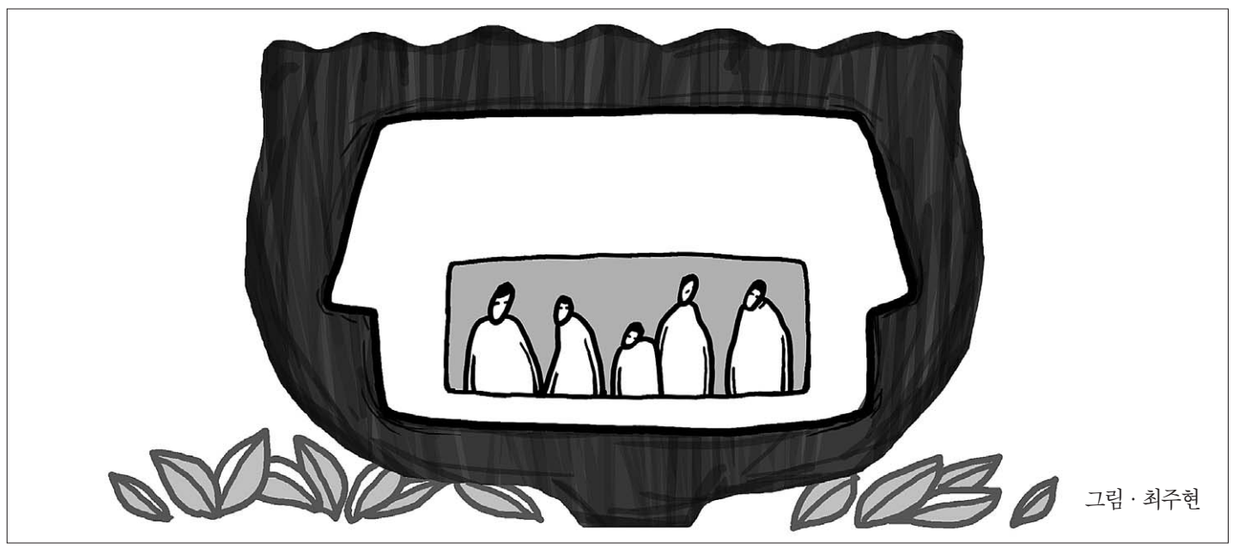
답 우리가 카네이션이다 이런다면 어머니 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날에는 꼭 카네이션을 꽂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날에만 어머니 꽃이 아니라 전체 이 유생무생이 다 어머니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렇게 소생시키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즉, 어머니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 '이 어머니 꽃이라는 건 꼭 어머니날만이 아니라 사시사철에 쓸모가 있구나. 아주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것이 어머니 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머니 꽃을 믿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머니 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니 꽃이 사시사철 만날 돌아가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항상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 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디에고 어머니 꽃은 쓸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아리따우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꽃이라는 건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 자식은 어머니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너한테 전달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 또 자식은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고, 남편에게도 바로 부가 붙으니까 그 뭐, 카네이션을, 마음의 꽃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꽃을. 또 그쪽에서도 나한테 또 그렇게 꽃을 줘도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이라는 꽃은 어디에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카네이션이거든요.

그와 더불어 그 꽃과 같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진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카네이션 꽃과 같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카네이션같이 그렇게 지혜가 넓지 못하고 부족하다면 바로 딴 꽃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름에만 속하고 어떤 물질에만 속하다가 보면 그냥 빠지게 돼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하나 잘 쓰고 잘못 쓰고 그러는 데서 이 믿음이란 게 오고 종교라는 게 있고, 부처님 법이란 게 있기 이전에 바로 자기 법인데, 그대로 법인데, 마음을 우리가 자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기 때문에 역대의 부처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도 되고, 할머니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또 아내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또 형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동생의 마음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렇게,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잖습니까. 그러니 이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묘하냐 이겁니다.

그럼 부처님만 그렇게 돌아가느냐.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쓰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중심에다, 뱃속에다 참자기가 있으니깐 거기다가 참구하고 그렇게 무겁게 탁, 바람에도 쓸리지 않게 둔다면 그게 주장자가 될 것입니다. 그 주장자로 하여금, 일월이 밝아서 고요하게 잠든 밤같이, 만강에 달이 비쳐도 내 중심 하나로 인해서 그 달을 몽땅 몰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느 강에든지 그렇게 달이 비춰 줄 수 있듯이 여러분도 같이 살면서 누구한테나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문제죠.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정도 가난할 것이고 마음이 풍부하다면 가정도 풍부할 것입니다. 마음이 진득하고 중심을 잡고 무겁게 사는 사람이라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갈 것이고, 값비싸게 갈 것이고 가볍게 사는 사람은 발걸음도 가벼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하는 일마다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진중하고 넉넉한 어머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문 육바라밀 중 첫번째가 바로 보시인데 그 동안 저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참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좀 보시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가 정말 했다는 상(相)이 없이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주상(無住相) 보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팔만대장경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본다는 건 벌써 그건 이차적인 겁니다. 일차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걸 좀 더 자세히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육바라밀의 첫째 구절에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시라는 건 물질적으로 주는 거는 금방 깨져 버리거나 먹어 버리거나 써 버리면 그뿐이지만, 무주상 보시라는 건 내가 한 생각을, 그 전체 대공의 이치에 돌아가는 내 귀합된 한생각을 해 준다면, 바로 그게 무주상으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몰락 놔 버려라." 하지만, 길에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너, 공부해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얽히고설킨 유전성이나 인과응보나 그러한 것이 많아서, 죄업에 끄달려서 그냥 엎어지는 사람에겐 가다가도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이유로다가 법정에서 뻘건 줄을 치고 '너는 오 년을 징역을 받아라. 무기 징역을 받아라. 사형이다.' 이렇게 된 것을, 즉 말하자면 '야, 모르고 지은 죄니까.' 하고 모든 거를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나의 그 전체적인 생명체에, 이 모두가 시공이 둘이 아닌 전체에 돌아가는 에너지를 그대로 내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바로 그것은 무주상(無住相) 보시로 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심장이 멎어 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에 의해서 너무 망쳐지고 죽게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가 도살장으로 간다든가, 또 사람이 가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동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동냥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진실한 한생각이 그 사람을 동냥을 해서 먹고사는 굴레에서 벗어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아주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보시인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방생이라고 하면 물에서 잘 노는 걸, 제 집에서 잘 노는 걸, 어부더러 잡아오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잡아오니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잡아오죠. 그러니 잡아올 때 죽이지, 잡아다 넣었을 때 죽이지, 또는 가지고 가면서 죽이지, 갖다 넣었을 때 죽는단 얘깁니다. 그러니 그것이 놀부의 짓이지 어디 그것이 보시입니까? 방생이고? 방생이라는 것은 물가에 가다가도 물이 없는 데서 퍼덕퍼덕 생명이 뛸 때 그때에 물에다 갖다가 넣어 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그럼 이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죄를 짓는 법입니다. 그걸 잡아오라고 가르쳐 준 자도 죄를 안 받지 않을 것이고 또 갖다 넣은 사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르니까 다 그렇겠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 이 소립니다. 자기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받게 되고, 요만큼 버렸으면 요만큼 버린 것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버려라! 버려라! 놔 버려라! 쉬어라! 공에다 일임시켜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굶어 죽는 사람 앞에는 무조건, 즉 말하자면 부황이 난 사람한테는 당장 먹어야 사니까, 이웃돕기를 해서 부황을 면하게 해 주는 그것도 보시요, 이건 유(有)의 보시이면서 또 무주상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이면서 살려 가면서 끌어다가 이 한마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러니 물질로 줘서만이 보시가 아니라, 물질을 안 주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고 방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을 줘서 보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넣어주는 데, 에너지를 넣어주는 데서 바로 무주상 보시가 나오는 겁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양식이 충만한데 그것을 먹게끔 해 주는 것이 무주상 보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주상 무주상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같이 마음을 한데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찌 내 생명은 아깝고 남의

☞22면으로 계속

2기 교육생 모집!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음식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한국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통 건강 관리인!

보건식품처방사란?
식약청이 인정한 식품원재료를 기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는 전문가

교 육 대 상 자
- 건강에 관심이 있는 자
- 신 웰빙 건강 전문가 및 식품 영양 학자
-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전문 유통업 종사자 및 희망자
- 허브추출 건강보조(기능)식품 연구 및 개발자
- 웰빙 / 건강관련 창업 희망자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전자연치유론, 약초기초, 동양의학기초, 식이섭생, 약차처방론, 체질론, 약초관리론, 식품위생보건학, 약용식품영양학, 식재료관리, 임상질병학, 식의처방학, 체질론, 식의학, 식의실습, 중탕론 I , 약초식품방, 약초법제론, 중국황실약선식의방, 중국약초식품방, 식의내과학, 음양식의학, 식의화학론, 식품발효학, 중탕론 II, 특별강의	12주 과정 주중반, 주말반 (주간/야간)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 문의 : 02)393-5111 / FAX 02)312-5404 www.kile.or.kr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uddhanews.com

강물 흐르듯 그냥 흘러갈 거를 자꾸 붙잡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생명은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아픔도 똑같고 자유도 똑같고 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굴리고, 굴리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면, 모든 걸 공에다 놔 버리고 지켜보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하나 그것이 능력이 되고, 능력의 빛이 나가게 되고, 그 빛으로 하여금 오장육부의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를 건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딴 사람의 육의 구원도 받게 해 줄 수 있고, 영원의 구원도 받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남편 마음이 잘 안 잡혀…

문 저의 남편이 회사가 부도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자 몇 년째 연일 술로서 마음을 달래며 버럭 소리를 질러 대기만 합니다. 자식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관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편 마음은 잘 안 잡힙니다. 남들은 관하면서 다 잘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답 이것이 전부 마음의 조작입니다. 잘못되는 것도 마음이요, 잘되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조작이니만큼 마음으로서 서로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빛보다도 더 빨리 연결이 됩니다.

빛은 가다가도 어떠한 변고가 생기지만 마음은 은산철벽도 뚫을 수 있고 남의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식이나 남편이 잘 안됐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바로 내가 남편한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고 그러는데, 어째 나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모두가 이 마음의 조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죽일 것도 아닌데 죽이거든요, 또. 이게 마음의 조작이란 말입니다. 고가 있느니 집착이 있느니, 그게 고와 집착만 없으면 멸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고 그렇다면 고라는 건 없어요.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서 '고'라고 하는 거지. 보세요. 강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를, 기껏 그냥 흘러갈 거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럭하고 집착하니까 강물이 흘러가다가도 그냥 걸려 버려요. 그러니깐 안될 수밖에.

그게 왜 안되겠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강물 흘러가듯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 이런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것 들었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저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것 했으면 저것 해야 하고 이게, 매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고정됨이 없이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로 벌써 과거로 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요, 자꾸. 여러분이 살면서 붙잡는 게 고(苦) 인(因)이에요. 잘되는 건 붙잡지 않는데 잘못되면 더더욱 붙잡고 늘어져요. 아, 좀 느긋하게,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좀, 이게 진짜로 자기 뿌리를, 자기 불성이 자기 뿌리거든요. 자기 종자며, 깨달은 분의 종자는 종성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자기 뿌리 없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뿌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싹으로 올려보내야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는 거죠.

> 이세상 살아나가는 게
>
> 다 놓고 가는 건데
>
> 왜 마음을 그렇게 놓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는 어디다가 팽개치고 항상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찾아다니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나요? 이 나무가 저 나무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될까요? 자기 나무에는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복하게 살려 해도 살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마구 붙들고 그래 가지고선 그릇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다 놓고 가는 건데 왜 마음을 그렇게 놓지 못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놓게 되면 그냥 저절로 풀려서 돌아갈 걸 외려 붙들어서 풀려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삼세심 불가득의 의미는?

문 요즘 수행 삼아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니다.

답 옛날에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스님이 하도 금강경을 많이 알아 가지고 금강경을 누구든지 해석을 해 달라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잘 말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저 중국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요, 불립문자요' 하는 얘길 하니까,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알면 내가 바로 견성을 시켜 줄 텐데 어째서 이 자들이 문자를 세우지 않고 알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괴나리봇짐에 금강경에 대한 강의 책을 짊어지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선가에서 유명하다는 용담 스님을 좀 만나려고 갔는데, 몇 달을 걸려서 그곳을 찾아가서 용담 스님이 계시는 절 부근에 도착했을 때 어떤 떡집에 도달했답니다. 떡집에 들어가서 떡을 썰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여기에 선에 유명하다는 용담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계시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그럼 좋소. 내가 지금 이 떡을 썰고 있는데 당신이 보나마나 배가 고파서 지금 나한테 떡을 사 먹으려 할 텐데, 당신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떡을 당신한테 팔 것이요, 대답을 하지 못하면 내가 떡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마디 일러 보시오. 내가 금강경이라고 하면 당신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설득시킬 수가 있소." 하고 얘길 했거든요. "그럼 『금강경』에 있는 말 중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떡을 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느 심에 떡을 썰고 있소?" 하는 질문을 하니까, 금강경을 그렇게 낱낱이 해석을 잘한다는 사람이 당장 말이 막혀서 대답을 못했단 말입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할머니가 당신은 떡 먹을 자격이 없으니 가 보라고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 방을 얻어맞고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이 계시는 회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는 금강경을 잘 알고 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다는 얘길 하니까 용담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듣고만 계셨거든요. 아무 말씀 없이 듣고만 계시다가 "이제 밤이 늦었으니 어서 가서 주무시오." 그렇게 얘길 하니까, 자기는 그만큼 하루 종일 얘길 해 놓고 나니 힘도 들고 밤도 늦어서 숙소로 들어가려고 "등불에 불을 좀 켜 주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용담 스님이 불을 확 켤 때 바로 다시 용담 스님이 그 불을 향해서 훅 불어 버리니까 꺼졌거든요. 그때 덕산 스님이 『금강경』 해설에 대한 그 책을 갖고 간 것을 내려놓으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불을 가져가다 문지방을 탁 넘어서면서, 이 문지방 사이가 교차로니까, 문지방을 넘어가는 동시에 껐을 거다 이겁니다. 문지방이 아니라면 안 껐죠. 근데 방에는 언제든지 문지방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문지방이 지금처럼 이렇게 얕은 게 아니라 높았지 않습니까?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가는 동시에 훅 끄니까 캄캄해서 앞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이래도 금강경을 다 잘 안다고 그러느냐." 하고선 말을 했을 게다 이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자기는 '참, 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이걸 못 보는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금강경을 놔 버린 거다. 그 순간 금강경을 몰락 놔 버린 거다 이겁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이 순간 그렇게 들 때, 앞을 못 보는구나 하는 순간에 금강경은 벌써 확 놔 버린 거다. 금강경을 그 순간에 몰락 내버렸기 때문에 금강경을 놔 버린 거다. 깨쳤다 이거죠. 남이 불을 켜 줘서 그 환한 것만 알지, 자기의 마음 안의 그 불은 켜지 못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의 불을 켠다면 바깥에도 비치련만 마음 안의 불을 켜지 못했으니 어떻게 바깥에 불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통 안에서 말입니다, 아주 그믐밤이라고 생각하고 저 불을 팍 꺼 보십시오. 그럼 불이 탁 꺼졌을 때는 그 안이 캄캄하기 때문에 바깥에도 캄캄합니다. 안이 밝으면 바깥에도 환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우리는 안이 밝으면 왜 바깥에도 환한가, 바깥에는 캄캄할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전기선은 바깥에도 있고 죄 있기 때문에 안에 켜 줄 수 있는 불이라면 바깥에도 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지방을 넘어설 때 내 눈이 밝았다면 바로 그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밝게 금강경을 다 했는데 왜 바깥이 컴컴하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왜 불을 켜 달라고 남더러 하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죠. 즉각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마당에 금강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
> 그걸 놓게 되면
>
> 그냥 저절로 풀려서 돌아갈 것을…

그러니까 글쎄, 그대로 현재심 불가득 떡 한 그릇 그것이 현재심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건데, 현재심 자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그런데 떡으로 비유했다 이겁니다. 떡은 하나의 떡 한 개, 그거 하나가 우주를 싸고 있는 떡이다. 그러니 떡 하나를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데서 '어떤 현재심에 떡 한 그릇을 먹겠습니까. 미래심에 떡 한 그릇을 먹겠습니까, 과거심에 그 떡 한 그릇을 먹겠습니까.' 하는데 그만 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떡을 달랜 것인데 그때의 거기에 걸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걸릴 게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떡을 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떡을 썰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거까지 들어가고 미래까지 들어갈 게 뭐 있겠소? 한생각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아까의 마음이 다르고 지금의 마음이 다르고 이따가의 마음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나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똑같으나 어떻게 쓰느냐에 모두가 달려 있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탑돌이는 하는 건지요

문 절에 가면 사람들이 정성껏 탑돌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그냥 남들 따라 돌면서 소원을 빌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탑돌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왜 탑돌이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고 들어왔기에 탑돌이를 하고 들어온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탑돌이를 했느냐 하고요. 그러니까 "저 탑이 성스럽고 부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들이 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탑돌이를 하고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얘기해 준 것이 뭐냐 하면, 내 진정한 마음과 우주간 법계에 수많은, 위로는 삼세의 부처님들이나 역대 조사들, 선지식들,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친 그 내공의 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돌아도 끝이 없는 돎이 바로 탑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냥 탑돌이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끼고 도는 거지요.

그러니 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탑돌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탑에 부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한정시키는 고정된 관념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의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그 향과 그 밝음이 이 대천세계를 다 비추고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공에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밝음이 없다면 그 빛을 서로가 서로에게 상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또 내 마음에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탑돌이로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부처님의 수행방법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본불교에 입각한 교리강좌와 수행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파욱 센터 우레와따 사야도 초청 집중 수행
수행일정 : 1차 2009년 6월 1일 ~ 6월 7일
2차 2009년 6월 8일 ~ 6월 14일
3차 2009년 6월 15일 ~ 6월 21일
4차 2009년 6월 22일 ~ 6월 28일
입실시간 : 오후 5시 까지, 장기수행 가능
준 비 물 : 편안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개인컵
저녁 법문 무료 (오후 7:00 ~ 8:30)

⊙ 외부 특별 법문
일 시 : 6월 20일 (토) 오전 10시 ~ 1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 사마타 위빠싸나 명상 (진경스님 지도)
일 시 : 2009년 6월 6일(토) 2시 ~ 6시까지
장 소 :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02-3411-8103
참 가 비 : 1만원 (전철3호선 일원역)

⊙ 봉인사 사마타 위빠싸나 명상
일 시 : 2009년 5월 15일 ~ 24일 까지
매월 9박 10일 간의 집중수행이 있음
장기수행도 가능 〈 언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

연 락 처 : 봉 인 사 031)574-5585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나눔, 그 소중한 지혜

좋은 글들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문인들이 참 많다. 몇 해 전까지 소설가로는 박경리를 비롯해 오찬식, 홍성원 그리고 시인 정공채도 있다. 특히 그는 임종을 예감이나 하듯 한편의 시를 필자가 주간으로 있는 잡지에 보냈다.

"세상 떠나면서 운다/ 그때 태어날 때와 지금 운다/ 눈물 소리 못 내고 한두 방울/ 이 빗방울에 말도 없이 고별사 안긴다/ 잘 있거라 내 사랑아." ('고별사' 전문) 몸은 비록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들 속에 담긴 감동적인 교훈과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조차 할 수 없으며 삶은 찰나처럼 한낮 보잘 것 없음을 알게 한다.

얼마 전 신문에 미국에 50여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억만장자의 삶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고 보니 소유에는 점차 더 흥미를 잃게 됐다고 하며, 고급주택이나 심지어 자동차도 없이 호텔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거기까지이다. 주변에는 가진 게 없어서 무소유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미담도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 물욕은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어느 사회든 버리는 사람보다는 갖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발전해왔지 않은가.

에리히 프롬이 말년에 저술한 <소유냐 존재냐>에 의하면 인간은 소유 지향과 존재 지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소유 지향은 꽃은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거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존재 지향은 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꼭 가져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점차 소유 지향으로 바뀌어 간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얘기할까. 어떻든 소유와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소유지향적인 삶은 행복하기가 힘들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운다. 그래서 비움의 문화 즉 기부가 있는 것이다. 삶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것만큼 가치 있고 진실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나눔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이고 행위이다. 한마디로 말해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룬 뒤 줄 곧 법을 나누는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 만약 부처님께서 그러한 나눔의 행위를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 따라서 우리도 '중생공양(衆生供養)이 제불공양(諸佛供養)'이라고 하듯 항상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뒤돌아보는 공덕의 숲을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나눔에 아쉬움이 남거나 나눔을 즐거워 할 줄 모르면서 말로만 나눈다고 하면 진정한 비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등장했던 어린아이의 심성으로 돌아가 보자. 피카소가 말년에 아기들의 습작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그림을 그렇게 유치하고 장난스럽게 그리느냐고. 그때 피카소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기까지 평생을 노력하며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대답했다.

누구나 머릿속 생각을 가슴으로 가져오게 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마음속에 비움이 꽉 찬 상태의 경지가 아닐까. 비움이 곧 채움이고 채움이 곧 비움인 것을 우린 매일 학습하면서도 어리석게도 또 망각한다. 초파일을 맞은 아름다운 5월에 지금이라도 자비행의 실천과 나눔의 참 정신을 전하는 무소유의 초발심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마음의 결제가 중요하다

기축년 하안거가 시작됐다. 안거의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일정기간 한 곳에서 집중수행을 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불자 전체에게 맞는 일은 아니다. 스님이나 시간적인 형편이 되는 불자들이라면 몰라도 생활인에게 석 달 동안의 집중수행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안거의 전통이 선방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생활 현장을 바쁘게 뛰는 사람일지라도 안거기간만큼은 특별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스스로 생활 속의 안거를 실행할 수 있다. 대중생활을 하면서 안거에 들 수 없다고 하여 안거기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안거가 형식의 안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일부 불자들은 안거기간 중에는 육식을 금하고 언사를 각별히 조심하며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 매일 108배를 한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만의 안거를 결제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불교는 형식 보다는 내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다. 스스로 안거의 전통을 활용해 삶의 내용을 수행정진의 자세로 변화 시킨다면 그 역시 경건한 안거대중인 것이다.

제방의 선원에서 결제에 든 스님들은 이번 철에 결단내겠다는 금강석 같은 구도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산 저 도량에서 오도송이 터져 나와 세상을 맑혀 주길 기대한다. 재가자들도 삶의 현장에서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말길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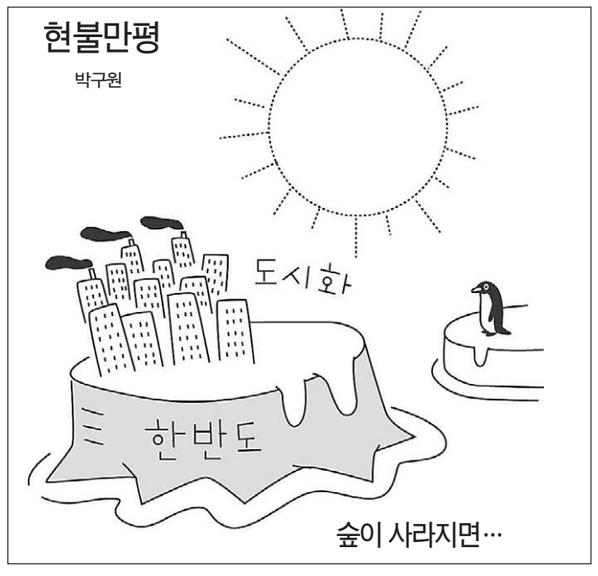
재산소유에 대한 승단의 고민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하는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소유 정신'이다. 물질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탐욕을 끊을 수 있고 소유욕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행자가 지녀야 할 소유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물론 부처님 당시와 지금은 모든 면에서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금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소유 정신' 만큼은 빛을 바래선 안 된다. 수행자가 소유욕에 물들어 탐욕의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수행자들은 소유의 문제와 관련 끝없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도 그렇고 종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율이 정하는 무소유의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세간에서 보는 출세간의 재산 소유 문제는 승가에 대한 존경심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각 종단의 분규가 재산과 권력에 대한 소유욕에서 기인되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근 조계종이 승려의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하게 하는 령을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 기존의 '승려법'에 적시된 내용에 따른 보완 사항이지만 이 령의 실행을 계기로 승려의 재산소유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단순히 종단 재산 보호 및 확충 차원이 아니라, 승려의 재산의 소유와 관련 계율과 현대사회의 수행자상 등을 포괄하는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 배려하자

5월의 테마-가정

조선시대의 남지(南智)는 영의정을 지냈던 남재(南在)의 손자이다. 좌의정이 되어 국정을 살피던 남재가 퇴궐하면 조부인 남재는 그에게 늘 하루의 일과를 묻곤 했다. 남지는 공손히 자세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대답해 드렸다.

얼마 후,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누?" 하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예, 오늘 창고를 관리하는 아랫사람이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비단을 숨겨 나오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그 비단을 두고 나오지 않기에 또 다시 갔다 오게 했습니다.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역시 그대로 나오기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제 뜻을 알고 비단을 두고 나왔습니다." 남재는 "옳지, 이제야 내가 너에게 일과를 묻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아랫사람을 다스리거라."

교육은 이론적으로, 학교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 최초의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부모의 가르침이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 부모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교육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인간의 삶의 출발은 부모의 가르침과 격려로부터 시작된다. 부모는 아직 세상이라는 물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노 젓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똑바로 갈 수 있기까지는 부모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물장난만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다른 아이를 보고 초조해하면서 내 아이를 다그치지 말자.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언제라도 달려가 쉴 수 있는 아늑하고 든든한 쉼터 같은 존재다.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본인들 문제가 우선 되다보니 아이들의 절망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굳이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입장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이들에게 엄마, 혹은 아빠가 나를 버린 이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이다. 강제 철거로 고향집이 없어진 들판에 홀로 서있는 듯 한 슬픔이 오래도록 남는다. 언젠가 협의 이혼상담실에 부모를 따라왔던 아이의 불안한 눈망울을 보고 한동안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훌륭한 조건이라 해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소박한 것일 수 있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 물과 보약을 가져다주면 그 아이는 어느 것을 택할까? 보약이 몸에 좋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는 물을 택할 것이다. 목마른 아이에게는 오직 물이 필요하다.

벽공 스님
봉녕사 강사
동국대 박사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현불샵 www.hyunbulshop.com
GRAND OPEN EVENT!!

현불샵...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실속있는 상품!!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과 편리한 구성!!

1. 회원 가입 이벤트

■ 경품안내

단돈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도 경품이 팡팡팡!!!
온라인 쇼핑몰 hyunbulshop.com 오픈기념
적립금 지급 이외에도 상품을 구입 하시는 모든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달간!!!)

1등(2명) : 북한 신비의 금강약돌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트
(108염주+단주+합장주) 판매가 245,000
2등(5명) : 건강에 좋은 만행화 지압 슬리퍼 판매가 80,000원
3등(10명) : 찜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허리팩 판매가 44,000원
4등(20명) : 내 차안에 우주의 氣가 가득히 우주탑 차걸이 판매가 8,000원

2. 적립금 이벤트 회원으로만 가입해도!! 적립금이 팡팡팡!!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적립금 2,000점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 달간!!!)

3개월 동안 ~ 현불샵 추천해주신 분과 추천받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적립금 5,000점과 현대불교신문
무료 3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구독자인 경우, 법보시 추천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유효기간 1개월 후 (자동소멸)

3. 현불샵 삼행시 짓기 이벤트

이벤트 창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이름의 삼행시를 지어 주세요~
연상되는 단어, 재미있는 표현 등..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순발력 있고 재치 넘치는 삼행시를 선정하여
반야심경 책갈피(북마크)8개 1set를 총 20여 분께 드리빈다.

※공통 :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를 현불샵 '공지사항'에 발표 해드리고,
개별 휴대폰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아는 만큼 쌓이는 혜택

현불샵에서 고객님께 드리는 빅세일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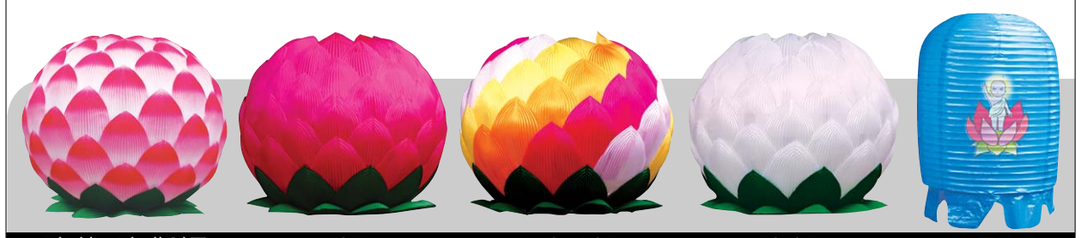
20~50% Big Sal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